

송강문학 연구의 흐름과 방향

박영주*

<차 례>

1. 송강문학 연구 성과 개관
2. 송강 관련 자료 현황
3. 시기별 연구 동향과 특징
4. 장르별·주제별 연구 동향과 특징
5. 연구 전망과 바람직한 방향

<국문초록>

이 글은 송강 정철(1536~1593)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성과를 연구사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전망 및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송강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다음, 단행본·학위논문·일반논문의 출간유형별 양상과 특징을 개관하고, 송강문학 연구 성과를 시기별·장르별·주제별 세 국면에서 그 두드러진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기존 연구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연구 전망 및 방향 설정의 디딤돌로 삼았다.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그동안의 연구는 출간유형 면에서 전작의 단행본과 박사논문이 많지 않은 반면, 석사논문과 일반논문은 압도적으로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 연구 동향과 특징 면에서는, 근대적 학문 방법론에 입각한 1930년대 중반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80여년의 기간을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초기 이후 논의

* 강릉원주대학교

대상이 확대되고 방법론적 다양성이 모색되면서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그런 가운데 기존 논의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국면으로의 도약을 통해, 송강이 일구어 낸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을 오늘의 시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수용·향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장르별 연구 동향과 특징 면에서는, 송강의 한시·시조(사설시조)·가사 가운데 가사 작품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고찰이 그 다음을 차지하며, 특히 박사논문의 경우는 한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주제별 연구 동향과 특징 면에서는, ㉠서지·전기·배경, ㉡언어·표현·제재·구조, ㉢사상·자연관·주제·미학, ㉣비교 연구, ㉤교육적 적용, ㉬작가론 및 종합적 고찰로 대별하여 살펴보았을 때, 송강문학의 미학과 작품론적 실상을 보다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연구의 관건이 놓여 있으며, 오늘의 연구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사적 동향과 특징들을 염두에 둘 때, 앞으로의 연구는 연구 대상과 관련된 장르적 편향성 및 방법론적 편향성의 극복, 송강 문학세계 전반을 관류하는 특성의 구명, 송강문학의 특질을 규명하는 논의의 심화와 지속, 송강시가의 누대에 걸친 수용 및 선호와 결부된 연행론적 특성 해명, 송강의 문학세계를 보다 수월하게 수용·향유할 수 있는 대중적 인식 기반의 조성, 송강문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환기하는 가치의 실상 탐구, 송강문학의 산실과 연계시킨 송강 문학세계의 문화콘텐츠화 등에 그 전망적 시각과 바람직한 방향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송강 정철, 송강문학, 연구 성과, 시기별 특징, 장르별 특징, 주제별 특징, 연구 전망

1. 송강문학 연구 성과 개관

근대적 학문 방법론을 토대로 국문학 연구가 본격화된 192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연구 성과는 우리 문학사에 족적을 남긴 여느 작가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만큼 다채롭고 풍부하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출간 유형에 따라 단행본·학위논문·일반논문으로 대별하고, 우선 양적인 면에서 그 두드러진 양상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¹⁾

먼저, 송강의 문학세계나 작가론을 전작의 형태로 출간한 단행본은 현재 40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에는 한두 명의 다른 작가와 함께 논의된 경우(12책)도 있다. 아울러 송강의 작품이나 행적을 부분적으로 수록·기술한 단행본은 130여 책에 이른다. 물론 이는 송강을 비중 있게 다룬 경우만을 간추린 것이다.

이같은 송강의 문학세계나 작가론에 결부된 단행본의 세부 양상이나 특징은 이어지는 시기별·장르별·주제별 연구 동향과 특징을 연구사적 국면에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살피겠거니와, 전작의 형태로 출간된 단행본의 경우 송강이라는 문호가 이룩한 작품세계의 다양성이나 작가로서의 성가에 비추어 결코 많다 하기 어렵다. 반면 송강의 작품이나 행적을 부분적으로 수록·기술한 단행본의 경우는 비교적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요컨대 거시적인 논의의 틀 위에서 송강의 문학세계나 작가론의 양상 및 특징을 구명하기가 그만큼 녹록지 않음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송강의 문학세계나 작가론에 결부된 학위논문은 전작의 박사논문이 16편, 특정 논제 속에서 비중 있게 다루며 부분적으로 수록·기술한 박사논문이 20여 편으로 파악된다. 석사논문은 전작의 경우가 154편,

1) 본고에서 논의의 근거로 삼는 그동안(2013년 9월 현재)의 연구 성과를 「송강 정철 관련 자료 및 연구논저 목록」이라는 별도의 자료로 작성하였다. 글의 말미에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분량이 방대하여 다른 지면을 통해 제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논의에 긴요하게 필요한 경우만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특정 논제 속에서 부분적으로 수록·기술한 경우가 20여 편으로 파악된다.

연구 대상이나 내용을 떠나 역시 양적인 면만을 보았을 때, 박사논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반면, 석사논문은 결코 적지 않은 편수로서 박사논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박사논문은 전작의 경우 단행본(40책)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송강의 문학세계나 작가론에 결부된 포괄적 논의가 예컨대 일관된 논리의 틀이나 예각화된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간명한 요건 충족만으로도 가능한 석사논문이 박사논문과는 대조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의 세부 실상은 시기별·장르별·주제별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피는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송강의 문학세계나 작가론에 결부된 일반논문은 전작의 경우가 368편, 예의 특정 논제 속에서 비중 있게 다루며 부분적으로 수록·기술한 경우가 30여 편으로 파악된다.

우리 문학사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사람의 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반논문 368편은 비교 기준의 모호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송강에 대한 인지도나 지명도가 높음을 말해 준다 하겠는데, 송강이 이룩한 문학세계나 작가로서의 행적이 우리 문학사에 끼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송강의 문학세계나 작가로서의 행적이 개별 연구 수행 당대의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면모를 다양하게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논의 내용의 세부 실상이라 하겠는데, 이 역시 시기별·장르별·주제별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피는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그동안의 연구 성과는 출간 유형에 따라 적잖은 편차를 지니고 있다. 전작의 단행본과 박사논문이 많지 않은 반면, 석사논문과 일반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수를 차지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송강의 작품이나 작가로서의 행적을 특정 논제 속에서 부분적으로 수록·기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행본의 경우 상당한 책수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의 경우는 많지 않다. 요컨대 양적인 면에 있어서 그동안의 송강문학 연구 성과는 우리 문학사 전체를 통해 볼 때 여느 작가에 견주어 손색이 없으면서도, 전작의 단행본과 박사학위논문이 많지 않은 사실이 말해 주고 있듯, 송강이라는 문호가 이룩한 작품세계의 다양성이나 작가로서의 성가에 비추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송강 관련 자료 현황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를 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송강원저’·‘주해서’·‘국역서’·‘외국어 번역서’·‘송강의 작품이나 행적을 기술한 고문헌’·‘송강의 작품이나 행적을 조명한 방송 미디어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송강원저에 해당하는 자료에는 대표적으로 문집이 있다. 기존에 여러 책으로 나뉘어 전하거나 간행된 자료들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수습하여 한데 묶고 영인 간행한 『松江全集』이 이를 대표하며, 서울대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표점 간행한 『松江集』도 있다. 여기에다 『松江歌辭』만을 별도로 영인 간행한 자료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불완전한 모습이었던 『文淸公 燕行日記』 영인본이 보다 온전한 형태로 간행되었고, 새롭게 발견된 『百世葆重』이 『燕行日記』와 함께 묶여 영인 출간되었다.

『松江全集』(影印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4)

『松江集』(한국문집총간 46집) (한국고전번역원, 2005)

『松江別集追錄遺事』(石板本) (경북대대학원 편, 1958)

- 『松江歌辭(全)』(影印本) (통문관 편, 1954)
『松江歌辭』(影印本) (대제각, 1973)
『燕行日記』(影印再複寫本) (송강유적보존회, 2010)
『松江 燕行日記』(연행록총간 증보판) (임기중 편저, 2013)
『百世葆重·燕行日記』(影印附錄) (김대현·김동수·최한선 역주, 담양군
가사문학관), 2004)

주해서는 모두가 『송강가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다음에서 보듯이 이른 시기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작업과 간행이 이루어져 왔다.

- 신명균(1933), 『송강가사』, 중앙인서관.
손종섭(1946), 『송강가사 정해』, 동서문화사.
방중현(1948), 『송강가사 주해』, 정음사.
최호연(1954), 『주해 송강가사』, 덕기출판.
박성익(1955), 『송강가사』, 정음사.
최창식(1956), 『주해 송강가사』, 정문사.
김사엽(1958), 『송강가사』, 경북대대학원 국어국문학연구소.
박성익(1961), 『증보 송강가사』, 정음사.
정재호(2006), 『송강가사』, 친구문화사.
김갑기(2009), 『송강가사』, 지식을만드는지식.

송강 관련 자료의 국역은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다. 『송강집』의 경우 1974년 처음 국역본이 출간된 이래 출판사를 바꾸어 가며 몇 차례 간행이 이루어졌고, 근래에 『문청공유사·관시록·음빙행기·송강선조유필』과 『백세보중·연행일기』가 각각 함께 묶여 국역 출간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송강이라는 문호의 세계적 선양을 표방한 ‘송강문화센터’가 주축이 되어, 송강의 시조·가사 전 작품 및 한시를 선별하여 외국어로 번역한 『韓漢英

松江詩歌』와 『露語版 松江詩歌』가 출간되었다.

『국역 송강집』(상·하)(정운한 역, 삼안출판사, 1974)

『송강선생문집』(정운한 역, 송강문집편찬회, 1987)

『국역 송강집』(송강유적보존회, 제일문화사, 1988)

『문청공유사·관시록·음빙행기·송강선조유필』(권순열·김은수 역, 담양군(가사문학관), 2004)

『백세보중·연행일기』(김대현·김동수·최한선 역, 담양군(가사문학관), 2004)

The Collection of Songgang's Poetry (『韓漢英 松江詩歌』)(손유택 역, 송강문화센터, 2010(2011 증보판, 2013 수정3판))

Сборник стихов Сонгана (『露語版 松江詩歌』)(뿌쉬긴하우스 역, 송강문화센터, 2013)

이와 함께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자료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 송강의 작품이나 행적에 대해 기술한 과거의 기록과 문헌들이 있다.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우선 『송강문집』에 수록되어 전하는 역대 문인들의 「序」·「跋」을 위시하여, 「行狀」·「行錄」·「年譜」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긴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문헌들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편찬 문인 생몰 연대순)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明宗實錄·宣祖實錄(국사편찬위원회, 1973)

『牛溪集』(민족문화추진회, 2000)

『栗谷集』(『栗谷全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58)

『芝峯類說』(을유문화사, 1975)

『象村集』(경문사, 1980)

『石洲集』(오성사, 1982)

『惺叟詩話』(『惺所覆瓿藁』,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1)

『東岳集』(여강출판사, 1984)

『西浦漫筆』(『西浦集·西浦漫筆』, 통문관, 1971)

『旬五志』·『詩話叢林』(『洪萬宗全集 上·下』, 태학사, 1980)

한편, 오늘의 문화적 환경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송강의 작품이나 행적을 조명한 방송 미디어 자료들 또한 제작되어 나왔다. 공영방송사에서 제작한 이들 자료는 대체로 송강이 이룩한 문학세계와 문학사적 위상을 기리는 다른 한편으로, 송강의 삶과 행적에 대해 나름의 역사적 평가를 아우르고 있기에 주의깊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EBS, 『송강 정철, 인생과 문학에 대한 변명』, EBS 미디어센터, 1996.

EBS, 『정철의 성산별곡』(EBS 문학기행), EBS 미디어센터, 1996.

EBS, 『문학기행2, 정철-성산별곡』, EBS 미디어센터, 1998.

EBS, 『역사극장5 : 시인 정치가 송강 정철』, EBS 미디어센터, 2011.

KBS, 『송강 정철 : 시인은 왜 당쟁의 투사가 되었나?』, KBS미디어, 2008.

KBS, 『담양에 심은 송강 정철의 ‘충절’』, KBS미디어, 2009.

MBC, 『성산별곡에서 어부사시사까지』, MBC프로덕션, 연대미상.

이밖에도 송강 관련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족보가 출간되어 있다.

영일정씨문청공파종친회, 『迎日鄭氏文淸公派世譜(全)』, 회상사, 1984.

영일정씨문청공파종중, 『迎日鄭氏文淸公派世譜·上』(화곡공파), 회상사, 2012.

영일정씨문청공파종중, 『迎日鄭氏文淸公派世譜·中』(강릉공파), 회상사, 2012.

영일정씨문청공파종중, 『迎日鄭氏文淸公派世譜·下』(운봉공파·기암공파), 회상사, 2012.

3. 시기별 연구 동향과 특징

근대적 학문 방법론에 입각한 송강문학 연구 역사는 80여년에 이른다.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시기별 연구 동향과 특징을 크게 20년 단위의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송강문학 연구가 시작된 ①1930년대 중반~1960, ②1960~1980, ③1980~2000, ④2000~현재의 네 시기가 그것이다. 아울러 전작의 논저를 기준으로 삼되, 이를 다시 단행본·학위논문·일반논문의 경우로 세분하여 그 두드러진 양상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다.

① 1930년대 중반~1960년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는 송강이 생존·활동하던 당대로부터 조선 후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근대 이전의 기록과 문헌들 가운데 긴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예들을 앞에서 제시하였다. 근대적 학문 방법론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중반이다. 그 선구적 업적은 이병기의 「송강가사의 연구」와 조운제의 『조선시가사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기(1936.4.), 「송강가사의 연구(1)」, 『진단학보』 제4권, 진단학회.

이병기(1936.11.), 「송강가사의 연구(2)」, 『진단학보』 제6권, 진단학회.

이병기(1937), 「송강가사의 연구(3)」, 『진단학보』 제7권, 진단학회.

조운제(1937), 「송강과 송강가사」,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송강문학 연구 초기로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 단행본의 경우는 앞에서 제시한 『송강가사』 주해서가 초기 연구의 중심을 이루다

가, 1950년대에 이르러 김사엽의 첫 전작 단행본과 김삼불의 저술이 출간되었다. 이 시기 학위논문의 경우 박사논문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진용수, 김사엽에 의해 석사논문 두 편이 선을 보였다. 그리고 일반논문의 경우 선편의 이병기에 이어 방중현, 김사엽, 정익섭, 정인보, 이경선, 최진원, 이병주 등의 연구가 뒤따랐다.

김사엽(1950), 『정송강 연구』, 계몽사.

김삼불(1956), 『송강가사 연구』, 국립출판사(평양)

진용수(1956), 「섹스피어와 정송강」,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김사엽(1958), 「송강가사 신고」,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방중현(1936.6.26./1942.7.1.~2.), 「송강가사 판본고」, 『조선일보』.

김사엽(1954), 「정송강의 문학정신」, 『경대학보』 제1집, 경북대학교.

정익섭(1955), 「성산가단과 송강 정철」, 『호남가단연구』, 진명문화사.

정인보(1955), 「정송강과 국문학」, 『담원국학산고』, 문교사.

이경선(1958), 「송강문학의 비교문학적 시고」, 『문리대학보』 통권1호, 부산대.

최진원(1958), 「송강과 고산의 시경-주로 문체의 비교에서」, 『논문집』 제3집, 성균관대.

이병주(1959), 「송강의 단가론」, 『동국문학』 제2호, 동국대학교.

송강문학 연구 초기로부터 1960년에 이르는 이 시기의 연구는 민족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역사주의적 관점과 문헌학적·실증주의적 방법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송강이라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함께 연구 대상 작품의 서지와 주석, 시풍과 문학사적 위상 등에 결부된 기초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송강의 작품세계와 작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1960~1980년

1960~1980년의 기간에 있어서는, 연구 인력이 확충되고 연구 대상이 확장되면서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된다. 단행본의 경우, 몇 권 출간되지 않은 가운데 송강문학의 가치와 의의에 바탕을 둔 작가론 형식의 저술이 비교 대상 작가들과 함께 또는 조선시대 대표적 문인들과 함께 엮여 출간되었다.

박성익(1966), 『송강·노계·고산의 시가연구-한국근세 3대 시가인의 대비적 연구』, 현암사.

김규형(1972), 『정철·박인로·허봉·허균·윤선도·김만리』, 동화출판공사.

이병주 편(1979), 『송강·고산문학론』, 이우출판사.

학위논문의 경우는, 역시 전작의 박사논문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는데, 송강의 작품이나 행적을 특정 주제 박사논문의 일부로서 비중있게 편입한 정익섭·정재호의 논의를 주목할 수 있다. 반면 석사논문은 20여 편이 작성되었다. 주로 송강의 가사작품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가운데, 중국 작가 작품과의 대비적 고찰, 작품에 담겨 있는 자연관과 사상, 작품의 화자 등 작품론에 결부된 특징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장진주사>나 <훈민가>와 같은 특정 작품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와 한시를 논의 대상으로 삼은 석사논문이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정익섭(1975), 「호남가단 연구-면양정가단과 성산가단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정재호(1977), 「가사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최석자(1963), 「송강가사와 이백의 시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성원경(1965), 「관동별곡과 적벽부의 비교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오혜순(1973), 「송강문학에 나타난 중국문학적 요소」,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안병태(1969), 「송강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김희선(1973), 「송강시가의 화자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갑기(1976), 「송강 문학사상 연구-가사상의 유교와 도교사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홍원기(1965), 「정송강의 ‘장진주사’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서만수(1969), 「정송강의 ‘훈민가’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정현용(1976), 「정송강의 한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현(1978), 「송강의 한시 연구-사미인시를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반논문의 경우, 송강의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개별 작품론에 대한 분석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송강시가의 어휘·문체 등 언어적 특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미인곡>·<속미인곡>·<훈민가>를 중심으로 개별 작품들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와 함께, 시조·가사 작품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논의들이 잇따랐다.

나진석(1960), 「송강가사의 분석-국어학 자료의 정리법 시론」, 『한글』
127호, 한글학회.

정복수(1967), 「송강과 노계의 문체에 대한 소고」, 『성대문학』 제12집,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오령석(1975), 「시조작가의 어휘고찰-송강과 노계를 중심으로」, 『한민족
어문학』 2집, 한민족어문학회.

서정국(1977), 「송강가사에 쓰인 어휘의 의미내용 고찰」, 『새국어교육』 25·2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박태남(1979), 「송강·노계의 시조 어휘 고찰」, 『논문집』 제2권 5호, 순천향대.

정익섭(1965), 「경민편과 훈민가」, 『한국언어문학』 제3집, 한국언어문학회.

서원섭(1967), 「사미인곡계 가사의 비교 연구」, 『경북대논문집』 제11집, 경북대.

정재호(1970), 「속미인곡의 내용 분석」, 『국어국문학』 79·80합집, 국어국문학회.

권두환(1976),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42호, 진단학회.

이병주(1968), 「정송강과 그의 가사」, 『새국어교육』 제1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이병기(1974), 「송강시조고」, 『국어문학』 제16집,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이상보(1974), 「정철의 송강가사」,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서수생(1978), 「정송강의 시조 연구-특히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모산 심재완 박사 화갑기념논총』, 논총간행위원회.

그런 가운데 특히 이 시기에 <성산별곡>의 작자와 창작연대 및 작품에 등장하는 서하당 식영정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하면서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고, 이 문제는 이후의 시기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장르별·주제별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피는 자리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와 함께 송강의 시조 작품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작품들에 대한 논의, 송강 문학작품의 생애적 궤적과의 연관이나 심리적·정서적 복합성에 대한 논의, 송강문학 형성에 끼친 작가와 작품의 영향관계나 형성 배경에 대한 논의, 송강의 생애와 작품론적 특성을 작가론으로 수렴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도 송강의 문학사상과 자연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한시에 대한 논의 역시 보다 구체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앞서 언급한 석사논문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송강문학의 중국 문학과와의 대비적 연구는 일반논문을 통해서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양 시인과의 비교 고찰이 처음 시도되기도 했다.

박준규(1988), 「송강의 단가재고-그의 의문작에 대하여」, 『전남대논문집』 제13집, 전남대.

김윤식(1970), 「송강 문학의 양면성」, 『현대문학』 통권 제186호, 1970·6월호.

김병국(1972), 「가면 혹은 진실-송강가사 관동별곡 평설」, 『기현 손낙범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정재호(1967),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의 비교 연구」, 『현대문학』 제151호.

정익섭(1976), 「송강문학 형성의 배경고」, 『도남 조운제 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권영철(1977), 「정철론」,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김갑기(1977), 「송강의 문학사상 연구」, 『동악어문논집』 10집, 동국대학교 동악어문연구회.

박준규(1979), 「송강의 자연관 연구(I)-산과 물을 중심으로」, 『용봉논총』 9집,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박준규(1980), 「송강의 자연관 연구(II)-달과 바람을 중심으로」, 『장암지현영 선생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서수생(1963), 「송강문학연구-특히 그의 한시부에 대하여」, 『논문집』 7집, 경북대.

이중찬(1968), 「한시로 본 송강」, 『새국어교육』 제1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이병기(1976), 「송강한시고」, 『국어문학』 제18집,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서수생(1962), 「송강의 전후미인곡 연구-특히 굴원의 조사와 비교해 가면서」, 『경북대논문집』 제6집, 경북대.

고승주(1974), 「송강문학에 끼친 이백문학의 영향」, 『국어국문학』 2집,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배기원(1979), 「한·영 낭만주의시 비교 연구-송강과 Wordsworth를 중심으로」, 『관대논문집』 7집, 관동대.

이렇듯 1960~1980년의 기간에 이루어진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는 이전 시기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새로운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송강문학 연구 전반에 활력이 생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송강문학 연구는 기존의 논의가 심화되는 다른 한편으로 연구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본격화되는 국면을 맞는 것이다. 이전 시기의 연구가 송강문학의 작품 외적 사실에 보다 치중했다면, 이 시기의 연구는 작품 내적 사실과 특성을 구명하는 데 보다 치중하면서 새로운 연구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③ 1980~2000년

1980~2000년의 기간에 있어서는, 새로운 연구 세대의 등장과 함께 문제의식이 보다 새로워지고 연구 방법론의 다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가 획기적인 전환의 국면을 맞는다. 이 시기에 이르러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점은 단행본·학위논문·일반논문 등 출간유형 전 분야에 걸쳐 이전 시기 20년의 기간에 비해 엄청난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단행본의 경우,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가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결과물로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송강문학의 배경으로부터 한시와 국문시가 작품론을 아우른 종합적인 연구가 개인 저술의 형태와 그동안의 연구를 묶은 편저 형태로 출간되었고, 송강문학의 특성을 생애적

례적과 함께 서술하면서 역사적 평가를 결들인 평전이 처음 출간되었다. 그런 가운데 기존 논의를 심화시킨 연구들 또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소재나 화법 등 특정 국면을 중심으로 삼은 연구, 송강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언어를 색인자료화함으로써 차후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결과물도 출간되었다.

김갑기(1985), 『송강 정철 연구-국·한문시가의 원류론적 고찰』, 이우출판사.
담양문화원 편(1991), 『송강 정철의 생애와 문화』, 담양문화원.
신경림·이은봉·조규익 편저(1993), 『송강문학연구』, 국학자료원.
한국고시가연구회(1994), 『송강 정철의 생애와 문학』, 전라남도.
박영주(1999), 『송강 정철 평전』, 중앙M&B.

김갑기(1986), 『소재로 본 송강문학』, 동국대학교 한문학연구소.
조세형(1990), 『송강가사의 대화전개방식 연구』, 태학사.
董 達(1995), 『조선 3대 시가인 작품과 중국 시가문학과와의 상관성 연구』,
탐구당.

김흥규(1993), 『송강 시의 언어-컴퓨터 처리에 의한 시가 용례 색인 연구』,
고려대출판부.
董 達(1995), 『한국한시분석색인 : 송강·노계·고산 작품을 중심으로』,
태학사.

학위논문의 경우는, 송강의 한시를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전작의 박사논문이 김갑기·유예근에 의해 이 시기에 처음 작성되었으며, 이후 한시·시조·가사를 대상으로 송강의 문학세계 전반을 논의하거나 일부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경우들과 함께, 송강시가의 시적 화자나 미적 특질 등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예각화한 논의들이 박사논문으로 작성되었다.

김갑기(1985), 「송강 정철의 한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유예근(1985), 「송강 정철 문학 연구-한시문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최태호(1987), 「정송강문학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신용대(1989), 「송강 정철 문학 연구-시조의 이기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이종국(1990), 「송강의 국문시가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권용주(1994), 「송강 정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김선자(1994), 「송강 정철의 시가 연구-한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윤미연(1996), 「정철 시가의 시적 화자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최규수(1996), 「송강 정철 시가의 미적 특질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또한 송강의 작품세계가 지닌 개성이나 특징을 전작이 아닌 특정 주제 박사논문의 일부로서 비중있게 편입한 논의들에 있어서는, 주로 자연관과 미의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 두루 등장하며, 가사 장르론을 다룬 경우에서도 논의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였다.

신영명(1990), 「16세기 강호시조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최상은(1991), 「조선전기 사대부 가사의 미의식-자연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최한선(1994), 「석천 임억령 시문학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김창원(1997), 「16세기 사림의 강호시가 연구-강호의 미적 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성무경(1997), 「가사의 존재양식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조세형(1998),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석사논문은 전작의 경우만도 이 시기에 무려 60여 편이 작성되었다. 송강의 국문시가를 대상으로 개별 작품론을 전개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방법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다른 한편으로, 기존 논의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별다른 성찰 없이 답습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송강의 생애적 궤적과 시대 상황에 따른 체험 및 가치 지향의식을 작품론적 특성과 연계시켜 논의한 경우들을 주목할 수 있으며, 송강문학의 특징적 국면을 보다 깊게 천착하려는 노력이 드러난 경우들 또한 주목할 수 있다. 송강의 작품세계가 지닌 특성을 석사논문의 일부로서 비중있게 편입한 논의들에 있어서는, 특히 조선 후기 畫壇의 眞景山水 畫와 결부시켜 논의한 예들이 이 시기에 등장해 눈길을 끌며, 이러한 방법론적 다변화 시도는 이후 논의로도 이어진다.

김석회(1981), 「정철 문학 연구-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체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승재(1986), 「송강문학 연구-현실지향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조연숙(1991), 「송강의 시가문학 연구-공인의식과 시인의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이동철(1980), 「송강시가의 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김성범(1983), 「송강 시조 연구-주로 풍류성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세형(1990), 「송강 가사의 대화 전개 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명순(1994), 「조선시대 진경산수화 연구-정선과 정철의 작품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란(2011), 「금강산 기행가사의 회화적 시선과 형상」, 강릉원주대 석사학위논문.

일반논문의 경우, 전체(368편)의 절반에 육박하는 160여 편이 이 시기에 쏟아져 나와 일대 성황을 이룬다. 그 대체적 경향으로는, 먼저 그동안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운 송강문학의 작품론적 특질에 기반을 둔 문학과 미적 특질 및 미의식에 관한 논의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정대림(1981), 「고전시학으로 본 송강시가」,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김석회(1983), 「송강문학의 서정적 특질 소고」, 『국어교육』 44·45합병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최진원(1988), 「송강시가의 풍류와 그 표상」, 『대동문화연구』 22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권두환(1993), 「송강 정철 문학의 특질」, 『인문논총』 제30집,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최진원(1995), 「송강 단가의 풍격」, 『고시가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학회.

박영주(1999), 「송강 시가의 정서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허남춘(1999), 「송강 시조의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10집, 반교어문학회.

전일환(2000), 「송강 정철 국문시가의 수사기교」, 『한국언어문학』 제45집, 한국언어문학회.

또한 송강의 산문에 대한 첫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한시·시조·가사 작품들을 대상으로 특정 요소나 주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 개별 작품 및 장르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을 통해 조명되었다. 송강가사에 등장하는 ‘님’의 맥류, 굴원의 초사 ‘이소’와 견준 평의 실상, 송강의 출처관과 결부된 가치 지향의식, 작품 속 시간과 공간이 지닌 의미 등과 관련하여 작품론적 실상에 입각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다 송강의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한 장르의식, 작품론적 연관성을 지닌 시조의 범주적 탐색, 송강의 누정을 제재로 삼은 한시 고찰 또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유예근(1986), 「송강 산문고(1)」, 『어문논총』 제2집, 경희대대학원.

유예근(1987), 「송강 산문고(2)」, 『논문집』 제27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정익섭(1981), 「송강가사의 ‘님’의 맥류고」, 『백강 서수생 박사 환력기념 논총』, 논총간행위원회.

박영주(1988), 「서포가 송강가사를 ‘아동지이소’라고 한 것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창간호, 반교어문연구회.

최상은(1993), 「송강가사에 있어서의 자연과 현실」, 『모산학보』 4·5집, 모산학술연구소.

김신중(1995), 「송강 가사의 시·공상 대비적 양상」, 『고시가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조규익(1994), 「송강 정철의 장르의식」, 『새국어교육』 5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최태호(1994), 「송강의 연시조 작품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제5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준규(1995), 「송강 정철의 누정제영고」, 『고시가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이와 함께 송강가사를 번사한 작품들과의 대비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송강가사 원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고증 작업, 송강가사의 문학교육적 적용 논의, 서구로 시야를 넓힌 송강 문학작품과 외국 작가 작품의 비교 연구, 그리고 송강문학의 특징적 면모들을 근거로 문학사적 위상과 평가를

아우르는 논의들이 이 시기에 거듭 이루어졌다.

이격주(1994), 「〈관동별곡〉과 〈사미인곡〉의 번사에 관한 일고-서포 김만중과 오봉암 정탁 한시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최규수(1998), 「서포 김만중의 〈관동별곡 번사〉에 나타난 한역의 방향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4집, 한국시가학회.

조해숙(2008), 「한국한시사의 전개와 국문시가-〈관동별곡〉 한역의 추이와 그 시가사적 의미」, 『한국한시연구』 16집, 한국한시학회.

김문기(1988), 「송강·노계·고산의 가집판본 및 冊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1집, 경북대 사범대학.

김대행(1995),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고시가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학회.

이상란(1987), 「Paul de Man의 문학비평론과 정철의 〈관동별곡〉과 Wordsworth의 The Prelude」, 『비교문학』 12집, 한국비교문학회.

이성일(1998), 「고대영시 ‘아낙의 탄식’과 송강의 ‘사미인곡’-화자의 목소리의 문제」, 『영어영문학연구』 20집, 연세대 영어영문학회.

조규익(1993), 「송강문학의 국문학사적 위상-국문노래를 중심으로」, 『송강문학연구』(신경림 외 2인 편), 국학자료원.

김석희(1998), 「민족어의 연금술사 송강 정철」, 『한국고전문학작가론』(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엮음), 소명출판.

다소 독특한 경우로는 송강의 인물론과 인간상을 구비전승 자료를 근거로 논의하거나 송강의 작품 및 생애적 궤적을 근거로 논의한 예들이 있다.

김선풍(1983), 「전설에 나타난 정송강(Ⅰ)-위인론을 중심으로」, 『관대논문집』 제11집, 관동대.

김선풍(1983), 「전설에 나타난 정송강(Ⅱ)-위인과 구조면에서」, 『흔미최정여 박사 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유예근(1985), 「송강 정철의 인간상」, 『어문논지』 제4·5집,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이와 같이 1980~2000년의 시기에 이루어진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는 양적으로도 방대할뿐 아니라, 논의 대상과 방법론의 다양성을 기틀로 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됨으로써, 연구사적 국면에서 획기적 전환의 국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송강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특징적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송강문학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앞 시기에 이루어진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한계 및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면서,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고 할 것이다.

④ 2000~현재

2000~현재에 이르는 기간에는, 앞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 방법론을 계승하여 보다 심화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특히 송강이 일구어 낸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을 오늘의 시대 문화적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향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송강문학의 특질 규명과 관련하여 그동안 소홀했던 국면들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작품의 미적 특성에 결부된 논의가 또한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단행본의 경우, 만고의 절창으로 일컬어지면서도 정작 딱딱한 고전의

들을 벗어나기 어려운 송강문학 텍스트에 누구라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의 저술들이 이 시기에 다수 출간되었다. 그리하여 송강이 일구어 낸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을 오늘의 시대 문화적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향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답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고전에 대중들로 하여금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술들은 특히 문자만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자료들을 텍스트와 동시에 다채롭게 수록하고 있으며, 송강이 밟아나간 삶의 행로와 작품 창작 당대의 의식세계까지를 아울러 기술하고 있어, 보다 입체적인 수용과 향유를 가능케 하는 것이 특징이다.

- 박준규·최한선 글, 박행보 그림(2000), 『미인곡의 산실 송강정』, 태학사.
 김세곤(2007), 『송강 문학 기행 : 전남 담양』, 열린기획.
 김신중·박영주 외 지음(2009), 『담양의 가사기행』, 담양문화원.
 정 준(2013), 『송강 정철과 함께 걷는 관동별곡 8백리』, 청동거울.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전작의 단행본으로서 학술적 진지함을 갖춘 저술 또한 이 시기에 지속 출간되었다. 송강문학의 매력(미학)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이 시기 저술의 공통점이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시가가 인구에 회자되며 대대로 수용된 실상을 수용자의 미적 반응에 근거하여 정리하면서 다양한 작품세계를 관류하는 미적 특질을 분석한 논의, 송강시가의 문체미학적 특징을 규명한 논의, 송강문학의 미학적 실체를 거듭 새롭게 규명하고자 한 논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최규수(2002),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도서출판 월인.
 고정희(2004),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윤선도와 정철의 경우』, 월인.
 김진욱(2004), 『송강 정철 문학의 재인식』, 도서출판 역락.

송강의 작품세계가 지닌 특성을 전작의 단행본이 아닌 특정 저술의 일부로서 비중있게 편입한 경우로는, 조선중기 호남시단 및 가단의 계보와 맥락 속에서 송강 당대를 비롯하여 전후 시기에 활동한 문인들의 작품세계를 논의한 예들, 송강가사의 미적 특성을 강호시가 혹은 사대부 가사의 시각에서 거듭 진지하게 논의한 예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최상은(2004), 『조선 사대부 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서.

김신중(2006), 『호남의 시조문학-송순부터 이세보까지』, 심미안.

최상은(2006), 『가사문학의 이념과 정서』, 보고서.

권혁명(2010), 『조선중기 당풍과 호남 한시』, 월인.

학위논문의 경우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작의 박사논문이 6편, 송강의 문학세계를 여러 작가들과 함께 비중있게 다룬 박사논문이 2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박사논문은 논의 주제나 방법론의 새로움이 두드러지지 않는지만, 중심 논의 대상으로 삼은 한시 또는 국문시가의 미학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지향의식에 있어서 만큼은 분명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지향의식은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기존의 논의들 역시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국면에 있어서는 설득력 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지 못한 데 대한 성찰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송강문학의 특성을 미학적 측면에서 구명하는 작업은 이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거듭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정희(2001), 「윤선도와 정철 시가의 문체시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욱(2003), 「송강 정철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김정민(2008), 「송강문학의 사상적 배경과 자연관 연구-한시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김진희(2009),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문철호(2011), 「송강문학연구-한시를 중심으로」, 중부대 박사학위논문.
구선우(2013), 「송강가사의 전승과 향유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박종우(2005), 「16세기 호남 한시의 한 연구-송순·임억령·고경명·정
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권혁명(2007), 「16세기 식영정 시단의 시세계 연구-임억령, 양응정, 김
성원, 정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그런가 하면 석사논문은 2000년 이후 현재(2013년 9월)까지 10여년의
기간에 전작의 경우 60여 편이 작성되었는데, 앞선 시기의 기간(20년)에
작성된 60여 편을 훨씬 능가하는 편수다. 이 시기의 석사논문들 역시 앞
시기에 이어 송강의 국문시가를 대상으로 삼은 개별 작품론이 대세를 이
루며, 접근의 시각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출 결과는 범상한 경우
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갖출 필요성을 환기한다.

특기할 사실은, 60여 편의 석사논문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여 편이 송
강시가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교육대학원에서 배출되고 있음에 주목할 때, 이는 이 시기
교육대학원의 전국적 활성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국어
(문학) 교과서에 송강시가가 실리지 않은 경우가 없고 보면, 이들 석사논
문들이 특히 <관동별곡>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까지를 어렵지 않게 헤아
릴 수 있다. 이들의 특징적 면모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장르별·주제별 연
구 동향과 특징을 살피는 자리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일반논문의 경우, 앞 시기에 이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매우 활발
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전작의 논
의만도 현재까지 65편이 발표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행본 및

박사논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송강문학의 작품론적 특질을 미학적 측면에서 구명하려는 논의들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논의들은 송강의 국문시가는 물론 한시를 대상으로 언어미와 표현상의 특징, 형상화 양상과 시적 이미지, 정서적 특질과 풍격(미학) 등 다양한 방법론적 모색과 성찰을 통해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예들이다.

- 정재호(2002), 「송강가사의 언어미」, 『고시가연구』 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이종묵(2007), 「송강의 오언절구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22집, 한국시가학회.
 이형대(2009), 「정철 시조의 감성 표현 양상」, 『한국시가연구』 27집, 한국시가학회.
 박영주(2013), 「송강 음주시의 양상과 풍격」, 『반교어문연구』 34집, 반교어문학회.

이와 함께 주목할 수 있는 특징으로, 송강의 삶과 행적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생활인으로서의 모습과 개성 및 嗜好가 묻어나는 작품들을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배경으로 논의한 경우들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한시를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송강문학의 개성적 단면들과 함께 그의 풍류인으로서의 면모가 조명되기도 하고, 수학과 교유가 활발하던 시절의 감성과 가치 지향의식이 조명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논의들로부터 송강의 문학세계가 관념적 추상보다는 경험적 실제에 입각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살필 수 있으며, 각 시기마다의 작품들 속에 그의 인생역정이 여실히 투영되어 있음을 또한 추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의미를 상기할 수 있다.

- 심경호(2001), 「송강 정철의 삶과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 6집, 한국한시학회.

박준규(2003), 「광주·전남지역의 누정조사와 정철의 누정제영」, 『어문논총』 38집, 한국문학언어학회.

전재강(2004),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21집, 한국시조학회.

박영주(2006), 「송강의 교유시 연구」, 『고시가연구』 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송강의 문학작품들이 당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매력적 요인들에 의해 대대로 수용·향유되고 거듭 새로운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지속되었다. 역사적 단계마다의 수용 맥락과 양상을 살핀 논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송강의 작품세계에 담겨 있는 정서적 보편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송강의 작품세계에 내재된 미학과 작가로서의 개성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환기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듭 새로운 시각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신중(2006), 「송강가사의 당대적 가치와 현대적 수용」, 『고시가연구』 1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윤덕진(2007), 「송강가사 전승사실의 맥락」, 『열상고전연구』, 26집, 열상고전연구회.

하운섭(2008), 「17세기 송강 시가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37집, 민족문학사학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론에 결부된 논의는 2000년으로 접어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존 논의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을 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여러 국면에서 투사되고 있다. 특히 송강이 일구어 낸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을 오늘의 시대 문화적 환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

용·향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전의 현대적 수용과 향유에 대해 거듭 진지한 논의를 펴는 한편으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의 출발점은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에 결부된 미학과 정서의 실상을 보다 친근하면서도 수월하게 수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시기에 있어서의 논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하겠다.

4. 장르별·주제별 연구 동향과 특징

현전하는 송강의 문학작품은 漢詩 763수, 賦 4편, 시조 86수, 사설시조 1수, 가사 4편, 그리고 서간을 비롯한 약간 편의 산문으로 파악된다. 이를 논의한 전작의 논저들을 비롯하여, 논의의 중요한 일부로 삼고 있는 일부 논저들까지를 포함한 연구는 현재 600편에 이른다.²⁾ 이들 논저 목록을 주요 논의 대상 장르에 따라 한시·시조·가사·시가·종합·기타의 여섯 갈래로 분류한 다음, 다시 출간유형에 따라 단행본·박사논문·석사논문·일반논문으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장르별 분류에 있어서 ‘시가’는 시조와 가사를 아우른 논의를 말하며, ‘종합’은 한시와 국문시가 모두를 대상으로 삼은 논의를 말한다.)

2) 단행본 47책 가운데 전작은 40책, 박사학위논문 25편 가운데 전작은 16편, 석사학위논문 154편은 모두가 전작, 일반논문 374편 가운데 전작은 368편임. 전작이 아닌 단행본(7책)·박사학위논문(9편)·일반논문(6편)은 연구사적 동향과 특징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경우들로 보아 이를 포함시킨 숫자가 600편임.

장르 유형	장르						계
	한시	시조	가사	시가	종합	기타	
단행본	2	2	5	6	32		47
박사논문	7	2	5	6	5		25
석사논문	12	18	90	10	23	1	154
일반논문	36	55	158	34	81	10	374
합계	57	77	258	56	141	11	600(편)
비율	9	13	43	9	24	2	100(%)

위의 표에서 보듯, 그동안의 송강 연구는 대상 장르면에서 가사가 압도적인 비중(43%)을 차지하며, 한시·시조·가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의가 그 다음(24%)을 차지한다. 그리고 뜻밖에도 시조와 가사를 함께 고찰한 시가(9%) 논의는 한시(9%)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와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한다.

출간유형별 논의 대상 장르에 있어서는, 단행본의 경우 종합적 논의를 제외하면 시가(6편)와 가사(5편)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박사논문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한시(7편)가 종합적 논의를 비롯한 여타 모든 장르보다도 오히려 많은 편수를 차지한다. 물론 시조와 가사를 아우른 논의(6편)와 가사를 대상으로 삼은 논의(5편)의 합집합에서 가사를 따진다면 한시를 대상으로 삼은 논의보다 많을 수 있으나, 박사논문의 경우 한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은 사실이다. 이밖에 석사논문이나 일반논문의 경우 가사 장르를 대상으로 삼은 논의가 압도적인 편수를 차지하는 것은 위에서 거론한 장르별 논의 비율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송강 관련 연구 논저들의 장르별·출간유형별 비중과 비율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에서 이들 장르별·출간유형별 논의 주제를 ㉠서지·전기·배경, ㉡언어·표현·체재·구조, ㉢사상·자연관·주제·미학,

㉔비교 연구, ㉕교육적 적용, ㉖종합적 고찰 및 작가론, ㉗기타로 대별하여 그동안의 연구 동향과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한시 연구 동향과 특징

도합 763수로 파악되는 송강의 한시는 그가 창작-활용한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이 전하며, 송강이 평생을 통해 추구한 삶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심상을 특유의 감각으로 형상화한 송강 인생역정의 등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의 문학세계를 생애적 궤적과 함께 여러 장르를 대상으로 고찰한 단행본(김사엽, 『정송강 연구』, 1950)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간되었지만, 송강의 한시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전작의 단행본은 지금까지 출간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사엽의 『정송강 연구』를 통해 제시된 송강 한시의 유형 분류와 주제적 양상 및 특징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참고하면서, 이후 의미 있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서지·제재’ 부문에 있어서, 송강 한시의 시기별 고찰과 작품 창작 연대가 고증되었고, 작품 분석을 위한 형식별 색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작품에 두드러진 이미지와 제재들에 대한 분석적 시각의 논의와 의미 부여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태호(1986), 「송강 한시 연대고」, 『논문집』제10집, 목원대.

董 達(1995), 『한국 한시 분석 색인 : 송강·노계·고산 작품을 중심으로』, 태학사.

권혁명(2011), 「송강 시의 이미지 연구-애상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19집, 한국한시학회.

김진욱(2011), 「송강 한시의 이상향 모티프 酒·夢·鶴 연구」, 『고시가연구』 2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작품에 투영된 ‘사상·자연관·주제·미학’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유가 사대부로서의 이념과 지향의식의 맥락 속에서 송강이 추구했던 가치와 자연인식 태도, 대사회적 국면에 결부된 작품의 주제와 문학적 형상화 양상,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시에 두드러진 교유 양상과 의미, 작가의 내면 세계와 긴밀히 조응하는 정서의 양상과 특질 등을 작품론적 실상에 입각하여 천착한 논의들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특히 송강이 지향했던 경국제민의 사회현실 참여 의지와 귀거래 상황에서 추구했던 가치의 실상에 대한 미적 정서적 형상 및 작품론적 특질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성기(1993), 「송강의 한시에 나타난 자연관」, 『인문학지』제9집, 충북대 인문과학연구소.

손찬식(1995), 「송강 정철 시세계-연군적 정서의 형상」, 『어문논집』34집, 안암어문학회.

박영주(2006), 「송강의 교유시 연구」, 『고시가연구』 18집, 한국고시가문학회.

김정민(2008), 「송강문학의 사상적 배경과 자연관 연구-한시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이와 함께 전작의 논의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보듯, 송강과 師友로서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던 문인들과의 연관 및 작품 활동무대가 된 지역적 배경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송강 시세계의 특징 탐구 작업과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16세기 호남 문인들의 시세계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의 한시를 포함한 당대 호남 한시의 미적 특질(풍격)과 문학사적 의의까지를 포괄적 국면에서 살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은수(1998), 「16세기 호남 한시의 특성」, 『고시가연구』제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박은숙(2004), 『16세기 호남 한시 연구』, 월인.

박종우(2005), 「16세기 호남 한시의 한 연구-송순·임억령·고경명·정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권혁명(2007), 「16세기 식영정 시단의 시세계 연구-임억령, 양응정, 김성원, 정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한편, 송강의 한시를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에서는, 주로 중국 시인 두보와 도연명의 시에 두드러진 주제적 면모로부터, 친자연적 정서와 음주에 결부된 흥취나 풍류의 양상에 결부된 대비적 측면의 논의가 주된 흐름을 이루었다. 또한 송강 한시의 세부를 두보의 시와 대비하면서, 낱말의 어구와 표현상의 유사성까지를 ‘材源’(源泉)의 측면에서 천착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면의 논의는 대체로 작품의 주제의식과 정서적 국면 혹은 제재적 차원의 특징을 작품 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 대비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작가들의 개성과 작품론적 특질의 상동성 및 상이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김갑기(1984), 「송강 정철 문학의 원류론-한시를 중심으로 본 비교문학적 수용론」, 『인문과학논집』 제3집,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董 達(1993), 「송강 한시의 材源 연구-두시 수용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10권, 국어국문학회.

김주순(2009), 「송강 정철의 한시에 나타난 도연명의 수용 양상」, 『중국학』 제32집, 대한중국학회.

이상의 경우들과는 층위를 달리하여, 송강 한시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고찰과 작가로서의 개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앞선 시기에는 주로 작품의 유형적 양상으로부터 내용 분류 및 포괄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한시를 바탕으로 삼은 작가론과 작품에 배어 있는 시정신

및 작시행위가 갖는 의미, 작품의 산실이 된 무대와 배경적 사실에 토대를 둔 작품론 등이 다양한 접근 시각과 더불어 산출되었다. 이와 함께 송강의 出處와 결부된 가치의식의 작품론적 형상화 양상, 송강 한시의 창작 방법과 문예미학적 특징에 관한 논의가 특정 작품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포괄적 또는 특정 작품군을 대상으로 한 논의들을 통해, 송강 한시의 넓이와 깊이에 대한 인식의 틀이 보다 짜임새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수생(1963), 「송강 문학 연구-특히 그의 한시부에 대하여」, 『논문집』 제7집, 경북대.

이종찬(1968), 「한시로 본 송강」, 『새국어교육』 제1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김군태(1982), 「정송강 한시 연구」, 『국어교육』 제41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박준규(1995), 「송강 정철의 누정제영고」, 『고시가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학회.

심경호(2001), 「송강 정철의 삶과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 6집, 한국한시학회.

이종묵(2007), 「송강의 오언절구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22집, 한국시가학회.

이들 논의와 함께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작의 박사논문들이다. 연구사적 측면에서 볼 때 전작의 박사논문은 아주 늦게서야 산출되었지만, 송강 한시에 대한 전반적 검토로부터 내용과 주제를 토대로 한 유형 분류, 작품에 투영된 사상적 배경과 자연관, 생애적 궤적과 결부된 작품론적 특징, 송강의 국문시가 및 다른 작가 작품과의 비교 연구 등 다양한 국면에서 이른바 송강 한시에 대한 논의가 본래도에 오르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들 박사논문들은 송강 한시를 대상으로 삼은 개별 논의들에 문제의식을 시사하고, 접근 방법론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데 연구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갑기(1985), 「송강 정철의 한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유예근(1985), 「송강 정철 문학 연구-한시문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최태호(1987), 「정송강문학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문철호(2011), 「송강문학연구-한시를 중심으로」, 중부대 박사학위논문.

그런가 하면 모두 4편이 전하는 송강의 賦는 송강 한시의 유형 분류 과정에서 한두 마디 언급되었을 뿐 여지껏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의 송강 한시 연구는 전작의 단행본이 전무한 상황에서, 초기의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논의로부터, 송강 한시의 시세계를 포괄적 국면에서 검토하여 유형과 주제를 분류하고 특징적 양상을 고찰한 논의를 거쳐, 작품론적 특질과 미학적 특성 및 작가로서의 개성을 구명하는 구체적 국면의 연구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송강 한시가 이룩한 시세계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과 작품론적 실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런 면에서 송강의 한시는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② 시조 연구 동향과 특징

현전하는 송강의 문학작품은 한시가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가사 작품이 대대로 높은 성가를 누려왔다. 그러나 사설시조를 포함하여 도합 87수로 파악되는 시조 작품의 경우, 양적 질적인 면에서 송강이 창작-활용한 여느 장르 못지 않게 주목받아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송강의 시조만을 집중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전작의 단행본 역시 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출간되지 않았다. 다만, 송강의 시조 작품을 평설하거나, 출신지역 작가의 맥락과 더불어 작품세계를 조감한 단행본이 다른 작가들과 함께 엮여 출간되었을 따름이다.

최진원(2002), 『고시조 감상 : 송강 정철 · 고산 윤선도』, 월인.

김신중(2006), 『호남의 시조문학-송순부터 이세보까지』, 심미안.

송강의 시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서지적 측면’에서 송강의 작품으로 확정짓기 어려운 작품들의 존재로 인해, 정확한 작품 수의 파악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목할 만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송강시조의 ‘언어 · 표현 · 구조’에 대한 논의는, 작품에 등장하는 어휘의 품사별 종류와 빈도수를 근거로 특징을 파악하고, 다시 이를 근거로 다른 작가와의 대비를 통해 송강의 기호와 품성 및 가치관 등을 조명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시상 전개방식과 어휘 사용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의 의미구조를 파악하거나, 제재와 시적 정서 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작품들을 연작시조의 관점에서 조명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시조의 특징적 면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면서, 작품 내적 사실에 충실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준규(1968), 「송강의 단가 재고-그의 의문작에 대하여」, 『전남대논문집』 제13집, 전남대.

오령석(1975), 「시조 작가의 어휘 고찰-송강과 노계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2집, 한민족어문학회.

이강룡(1993), 「송강시조의 의미구조 연구-훈민가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9집, 청람어문학회.

최태호(1994), 「송강의 연시조 작품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제5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다음으로 ‘사상·자연관·주제·미학’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우선 송강의 <훈민가>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거나 시조 작품 전반을 들어, 경국제민의 사회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송강의 가치 지향의식이 작품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적으로 고찰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러한 작품론적 특징과 결부된 송강의 장르 선택 동기와 시조의 시적 기능, 작품에 내재된 송강의 정치철학과 이상 실현 태도, 목민관·신하·자연인으로 차별되는 작중화자의 모습과 이에 따른 작품의 표현양상 및 주제의 차이에 주목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논의는 이른바 ‘훈민가류’에 속하는 작품이면서도 송강의 <훈민가>는 어느 작품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구명한 점, 송강시조에 내재된 작자의 가치의식 및 시적 형상화 양상의 일단을 구명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서만수(1969), 「정송강의 ‘훈민가’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권두환(1976),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진단학보』42호, 진단학회.

이화형(1995), 「송강 시조에 나타난 정치철학의 특성」, 『시조학논총』11집, 한국시조학회.

김상진(2002), 「송강 시조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과 차별 양상」, 『온지논총』8집, 온지학회.

송강시조가 지닌 문학적 특질과 미학에 대한 논의는 송강문학 연구 초기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언급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최진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깊이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는데, 그는 ‘4음보격 3행’의 간결한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송강시조의 미학(풍격)을 표현언어의 세련성과 시상의 개성적 전개 등에 주목하여 분석적 투시적 안목으로 구명해 내었다. 이어 송강시조의 미의식을 작품론적 실상에 입각하여 고찰한 후 이를 작가의 기질과 품성에 결부된 논의로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작품에 동원된 표현언어의 성

격과 형식의 파괴 및 재창조에 송강시조의 특성이 있음을 고찰한 논의, 송강시조의 감정 표현양상을 인물·이미지·운율의 측면에서 살핌으로써 송강시조가 지닌 특이성을 조선전기 시조사의 맥락 속에서 해명하고자 한 논의가 뒤따랐다. 송강시조의 문학적 특질과 미학에 대한 논의는 이렇듯 다양한 접근의 시각을 통해 그 실체 해명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진원(1995), 「송강 단가의 풍격」, 『고시가연구』2·3합집, 한국고시가학회.

허남춘(1999), 「송강 시조의 미의식」, 『반교어문연구』10집, 반교어문학회.

김진욱(2003), 「정철 시조의 문학적 특성 연구」, 『고시가연구』제12집, 한국고시가학회.

이형대(2009), 「정철 시조의 감정 표현 양상」, 『한국시가연구』27집, 한국시가학회.

‘비교 연구’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시조사에서 가장 우뚝한 봉우리를 이룬 작가로 일컬어지는 고산 윤선도 시조와의 대비가 주된 흐름을 이루는 가운데, 여기에 노계 박인로를 포함시켜 이른바 조선시대 3대 歌人으로 일컬어지는 세 작가의 시조를 비교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비교 대상 작가들의 작품 전체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제를 내세우기는 해도, 대부분의 경우 작품의 특정 국면을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에 두드러진 시적 이미지, 사회현실에 대한 문학적 대응양상, 굴원·이백·두보의 시적 취향 수용, 현실인식과 자연관에 내재된 의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차별적 양상과 의미부여 작업을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에 의해 송강시조의 개성이 대비적 관점에서 부각된 점은 성과라고 하겠으나, 비교 대상 작가들의 작품론적 특질에 기반한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대규(1969), 「시조문학에 나타나는 심상의 연구-송강·노계·고산의 작품 분석 및 비교」,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성원(1987), 「송강과 고산의 문학적 대응양상에 대한 비교고찰-훈민가와 어부사시사를 중심으로」, 『나랏말싸미』 2집, 대구대 국어교육과.
- 김갑기(1991), 「송강·고산 시조의 용사 비교」, 『교육과학연구』 5집, 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
- 이화형(1998), 「정철과 윤선도의 대비적 고찰-시조에 나타난 실존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4집, 한국시가학회.

송강시조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송강에 관한 한 가사작품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육현장의 상례인 터라, 이점은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한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송강의 시조는 <훈민가>를 위시하여 풍류의 흥취나 연군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 대부분인데, 그 작품 수는 많지 않다. 이들 송강시조에 대한 교육적 적용과 관련된 대표적 논의로서, 작품 이해와 감상을 통한 윤리 교육과 정서함양 교육 및 시조수용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를 살핀 논의가 이루어졌고, 솔직하고 감성적이며 호방한 언어를 구사하는 송강시조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시조에 대한 인식확대 국면에서 문학 교육 자료로서 활용한 필요성을 강조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시조의 문학교육 자료로서의 유용성과 함께 문학교재 개발시 송강시조가 적극 수용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백민정(2010), 「송강 정철의 시조문학 교수방법」,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고영화(2012), 「송강 시조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3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송강시조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고찰과 작가로서의 개성’에 결부된 논의는, 연구사 초기의 작품 평설과 개성적 면모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거쳐, 표현어휘와 형식구조 및 사상전개 과정을 아우른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송강시조의 특징과 작가의 개성을 구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주목할 수 있는 논의로는, 시조를 중심에 놓고 송강의 장르의식과 작품에 투영된 의식세계 및 시공의식의 형상화 양상을 고찰한 논의가 있으며, 송강시조가 실려 있는 판본 가운데 「성주본」이 지닌 의의와 더불어 「성주본」 수록 작품들이 지닌 특징과 의미를 자기갈등의 형상화 측면에서 고찰한 논의가 있다.

이병주(1959), 「송강의 단가론」, 『동국문학』제2호, 동국대학교.

이병기(1974), 「송강의 시조고」, 『국어문학』제16집,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조규익(1995), 「송강 정철의 단가」, 『고시가연구』2·3합집, 한국고시가학회.

최규수(2000), 「성주본 『송강가사』 소재 시조의 특징과 의미」, 『시조학논총』16집, 한국시조학회.

‘종합적 고찰과 작가로서의 개성’을 여실히 살필 수 있는 예는 박사논문인데, 송강시조의 경우는 참으로 영성하다. 전작의 박사논문은 신용대의 논의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기철학의 관점에서 송강의 시조작품을 분류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시조를 통해 송강의 문학사상과 의식세계의 특징 및 송강시조 고유의 개성을 밝혀내고자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송강의 문학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전작이 아닌 박사논문 가운데에는, 송강이 처한 정치적 철학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시조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면서, 송강이 활동했던 16세기의 강호시조를 중심으로 당대 사대부 시가의 전개 양상을 조망한 논의가 주목된다.

신용대(1989), 「송강 정철 문학 연구-시조의 이기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신영명(1990), 「16세기 강호시조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한편, 송강 사설시조 작품에 대한 논의는 송강 소작 여부가 문제되는 작품을 제외하고 <장진주사> 한 편으로 한정해 볼 때, 작품 수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장진주사>는 송강의 문학세계와 국문시가에 대한 포괄적 논의들에서 간략하게나마 언급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특히 음주시에 관한 논의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논의들은 <장진주사>만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지금까지의 예들이다.

홍원기(1966), 「정송강 장진주사 연구-문학·음악 양면에서 본 장르 설정」, 『문호』 4집, 건국대.

홍재휴(1969), 「정송강의 장진주사 연구」, 『논문집』 제4집, 대구교육대.

박태남(1984), 「송강의 장진주사 고찰」, 『논문집』 제7권 3호, 순천향대.

이임수(1984), 「송강 <장진주사>의 구조미학」, 『동경어문논집』 제1집, 동국대 경주대학.

홍정자(1986), 「장진주사 장르론」, 『태릉어문』 제3집, 서울여대 국어국문학회.

송재주(1993), 「장진주사 평문 해석에 대하여」, 『국어교육』 81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이완형(1995), 「송강의 <장진주사> 연구-장르 귀속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26집, 충남대 어문연구회.

강재현(2012), 「정철 <장진주사>와 박인로 <권주가> 대비 고찰」, 『어문연구』 74집, 어문연구학회.

위 목록에서 볼 수 있듯, <장진주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학계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 주로 장르규정과 작품 이해의 시각 및 평가에 결

부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장르규정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서지적 사실과 작품의 형식구조 및 율격 분석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면서 사설시조(엇시조)와 가사로 나누어진 바 있으나, 사설시조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또 작품 이해의 시각 및 평가에 있어서는, 음주를 모티프로 한 풍류의 흥취, 음주에 탐닉하는 퇴폐적 정서, 음주를 매개로 한 삶의 반추와 회한의 정서가 두드러진 작품 등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으며, 이를 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입각하든 <장진주사>는 오랜 세월 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절창으로 일컬어져 왔거니와, 특히 유려한 우리말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에 깃든 사유와 정서로 인해 미적 정서적 감동이 남다른 작품으로서, 송강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음주시의 대명사격임에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송강시조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전작의 단행본과 박사논문의 영성함이 말해주듯, 특히 집중적인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가>을 위시하여 일부 음주를 제재로 한 연작시조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도 하겠으나, 작품론적 실상에 입각한 송강시조의 미학과 송강의 시조작가로서의 개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양적 질적인 면에서 수준 높은 작품세계를 일구어 놓은 송강시조에 대한 연구가 이렇듯 충분할 만한 국면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그동안 학계에서 관용어가 되다시피한 ‘송강의 가사, 고산의 시조’라는 상대적 양분의식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송강의 시조는 분석의 다양한 틀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작품세계가 지닌 넓이와 깊이를 확장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사 연구 동향과 특징

송강의 가사작품에 대해서는 근대적 학문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이전부터 그 문학적 탁월성에 대한 평가적 발언들이 끊이지 않았거니와, 근대

이후에도 가장 다채롭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송강에게는 으레 ‘가사문학의 최고봉’이라는 수식어가 관용적으로 따랐으며, 그런 만큼 가사에서 이룩한 송강 문학세계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숱한 연구자들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송강가사를 논의 대상으로 삼은 전작의 단행본은 한시나 시조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이른 시기(김삼불, 『송강가사 연구』, 1956)에 선을 보였으며, 이후 드물기는 해도 나름의 문제의식을 동반한 출간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들 단행본을 포함한 송강가사 연구 동향과 특징을 역시 부문별로 항목화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송강가사의 ‘서지·전기·배경’과 관련된 논의는, 앞장에서 살폈듯 연구사 초기의 판본 연구와 주석 작업으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기적 사실과 관련된 작품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후술하는 ‘⑤종합적 연구 및 작가론의 동향과 특징’을 살피는 자리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가사작품에 국한된 논의만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송강의 가사작품 가운데 ‘서지·전기·배경’과 관련된 논의로서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성산별곡>이다. 이 작품은 『송강가사』 뿐만 아니라 김성원의 『서하당유고』에 수록되어 전하는데, 작자·창작연대·식영정 주인을 쟁점으로 적잖은 논란과 상충된 견해가 제시되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세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논의를 편 경우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사엽(1958), 「송강가사 신고-새로 발견된 문헌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2집, 경북대학교.

서수생(1967), 「송강의 성산별곡 창작연대 시비」, 『교육연구지』 7·8집, 경북대 사범대학.

강전섭(1971), 「성산별곡의 작자에 대한 논의」, 『장암 지현영 선생 화갑 기념논총』, 호서문화사.

박준규(1985), 「성산의 식영정과 성산별곡」, 『국어국문학』 49호, 국어국문학회.

정익섭(1986), 「〈성산별곡〉의 작자고」, 『어문논총』 9집, 전남대, 1986.

김선기(1998), 「〈성산별곡〉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최한선(1998), 「성산별곡과 송강 정철」,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성산별곡〉의 작자에 대해서는 송강 외에 임억령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고, 창작연대는 송강 나이 30세 전후라는 견해와 50세 무렵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식영정 주인은 김성원·임억령·송강 자신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학술적 논란과 상충된 견해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 하겠는데, 이는 요컨대 어느 견해에 입각하느냐에 따라 작품 이해의 시각과 작품론적 특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산별곡〉을 둘러싼 학계의 이러한 논의는 작품 탐구의 엄밀성과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어느 경우든 작품 내적 사실의 충실한 분석과 작품론적 특질 구명이 전제될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송강가사의 ‘언어·표현·제재·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일찍이 송강가사 작품들에 등장하는 어휘·음운·어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근거로 송강의 우리말에 대한 수준높은 감식력과 송강가사의 국어문학사상 위상에 대한 의미부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송강가사에 쓰인 어휘의 품사별 분포와 빈도수를 조사·분석하면서 송강가사에 쓰인 어휘의 특성과 현대어와의 차이점 논의가 이루어졌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송강가사 각 작품의 이본 대비와 교정, 주석과 현대역을 바탕으로 컴퓨터 정보처리를 위한 생략언어의 현시를 다룬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송강가사의 국어학적 특징이 규명되고, 어휘자

료로서의 활용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진석(1960), 「송강가사의 분석-국어학 자료의 정리법 시론」, 『한글』 127호, 한글학회.

서정국(1977), 「송강가사 어휘의 의미내용 고찰」, 『새국어교육』25·2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상태(2005), 『컴퓨터 정보처리를 위한 생략언어의 현시-송강가사를 중심으로』, 학고방.

또한 송강가사의 ‘언어·표현·체제·구조’와 관련하여 간과하기 어려운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화법, 언어표현의 기교와 미적 효과, 한역의 양상과 의미에 주목한 논의들이다. 우선 작중화자의 존재와 전개방식은 작품론의 주요 국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가사의 예술적 특성과 대화이론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송강가사에 나타난 대화양상과 그 의미를 추출해 낸 논의가 이루어졌고, <성산별곡>이 문답체 문학의 오랜 전통 위에서 제작된 작품임에 주목하면서 작품 내적 구성방식의 고찰을 통해 작품론적 특징을 구명한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송강가사의 수사기교상의 특징을 對偶에 초점을 맞춰 분석적으로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송강가사에 사용된 어휘들이 작품 내에서 미적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특의·연군·갈등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여러 문인들에 의해 거듭 한역된 <관동별곡>의 한역 양상과 시가사적 의미를 밝히는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가사의 언어적 특성과 표현상의 특징 및 작품구조와 결부된 방법론적 다양성의 두드러진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형(1990), 『송강가사의 대화전개방식 연구』, 태학사.

김신중(2001), 「문답체 문학의 성격과 <성산별곡>」, 『고시가연구』5집, 한국고시가학회.

- 전일환(2000), 「송강 정철 국문시가의 수사기교」, 『한국언어문학』 제45집, 한국언어문학회.
- 정재호(2002), 「송강가사의 언어미」, 『고시가연구』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 조해숙(2008), 「한국한시사의 전개와 국문시가-〈관동별곡〉 한역의 추이와 그 시가사적 의미」, 『한국한시연구』16집, 한국한시학회.

‘사상·자연관·주제·미학’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송강의 문학관이 載道的 관점에 입각해 있음을 전제로, <관동별곡>에 나타난 송강의 자연관은 忠孝節의 윤리의식과 化民成俗의 이상을 담으면서, 국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찬미해 나간 데서 두드러진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강호형상을 중심에 두고 강호시가를 분석했을 때, 16세기 후반의 <성산별곡>을 전환점으로 하여 뚜렷한 변화의 징후가 전개되는바, 강호라는 미적 공간이 전대에 비해 보다 협소해지고 견고하게 폐쇄화되는 현상이 사림의 정신적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와는 층위를 달리하여, 서경가사에는 景을 주로 하면서 情과 事의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음을 전제로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의 서경가사로서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한 후, 두 작품이 情·景·事의 합일을 드러낸 서경가사라는 점을 부각시킨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논의는 송강가사 작품에 투영된 자연인식과 형상화 양상 및 특징을 송강이 지향한 문학사상 또는 당대 정신사적 풍토와 결부시켜 논의하거나, 장르적 측면의 확장된 시각을 통해 조명하였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 정대림(1981), 「〈관동별곡〉에 나타난 송강의 자연관」, 『논문집』제8집, 세종대.
- 김창원(1997), 「16세기 사림의 강호시가 연구-강호의 미적 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경철(2000), 「송강가사의 서경성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제·미학’에 결부된 송강가사의 작품론적 특질과 문학적 논의는 특히 방법론적 다양성이 돋보이는 예들이 많다. 우선 주목할 수 있는 예는 김병국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송강문학의 감동원리를 분석심리학의 방법론을 원용해 <관동별곡>을 고찰하면서, 현실원칙과 쾌락원칙, 직무정신과 방랑하는 영혼 사이의 심리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양상구명을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생명과정이 <관동별곡>에 구현되어 있음을 논의하였다. <관동별곡>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논의로는, 역대 선인들의 평가적 발언들을 근거로 작품론적 특성을 시적 형상성에 초점을 맞춰 구명한 논의가 있으며, 작품을 구성하는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마다의 정서 표출양상을 살피면서 기행가사로서의 성격과 특징을 구명한 논의가 있다. 또한 송강가사 네 작품에 나타난 시공상의 대비적 양상과 수법 분석을 통해 작품의 정서적 효과 및 주제 전달효과를 구명한 논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어법적 특질과 의미에 주목하여 <관동별곡>과 <성산별곡>의 차이를 이상적 미화와 현실적 미화로 함축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념과 현실, 공간과 장소 의식이 작가의식의 향방을 가늠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송강가사 네 작품을 들어 탐색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가사의 작품론적 특질과 미학을 구명하는 방법론적 다양성 및 심화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병국(1972), 「가면 혹은 진실-송강가사 관동별곡 평설」, 『기현 손낙범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주(1994), 「<관동별곡>의 시적 형상성」, 『반교어문연구』제5집, 반교어문학회.

정재호(1994), 「관동별곡의 공간」, 『새국어교육』5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신중(1995), 「송강 가사의 시·공상 대비적 양상」, 『고시가연구』2·3합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최규수(1997), 「<관동별곡>과 <성산별곡>의 어법적 특질과 의미」, 『온

지논총』 제3집, 온지학회.

최상은(2013), 「고전시가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공간과 장소의식 탐색-송강가사를 통한 가능성 모색」, 『한국시가연구』 34집, 한국시가학회.

한편, 송강가사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는, 송강이 창작-활용한 장르 가운데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 만큼 비교의 층위와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우선 송강가사 작품 간의 비교와 국내 작가 및 작품과의 비교가 이루어졌고, 국외의 경우에는 중국 작가 작품과의 비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서구로 비교 대상을 넓히기도 했다. 이렇듯 비교의 층위와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기에서는 비교 대상에 따른 연구사적 동향만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송강가사 작품 간의 비교 연구는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송강의 가사와 한시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국내 작가 및 작품과의 비교는 송강가사와 그 이전 가사, ‘사미인곡계’ 가사 일반과의 비교가 통시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또 송순의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의 비교를 통한 작품의 영향관계, 노계가사와의 비교를 통한 미의식의 차이, 허균의 <동정부>와 <관동별곡>의 비교를 통한 가사와 사부의 연관성, 조위의 <만분가>와 <사미인곡>을 유배가사의 관점에서 비교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김창식(1983), 「송강의 가사와 그의 한시와의 대비적 고찰」,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정재천(1994),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비교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서원섭(1967), 「사미인곡계 가사의 비교 연구」, 『경북대논문집』 제11집, 경북대.

정재호(1967),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의 비교 연구」, 『현대문학』 제151호.

- 전일환(1979), 「송강가사와 그 이전 가사의 비교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성선영(1995), 「송강가사와 노계가사의 비교 연구-미의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1996), 「정철 <관동별곡>과 허균 <동정부>를 통해 본 가사와 사부의 인연관계 고찰」, 『한국어문교육』4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류연석(1999),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비교 연구」, 『한국언어문학』42집, 한국언어문학회.

중국 작가 작품과의 비교 연구는 굴원의 초사, 이백의 시, 두보의 시, 소동파의 <적벽부> 등과 송강가사를 대비적으로 고찰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외국인(유학생)에 의해 중국 작가 작품과의 대비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서구로 시야를 넓혀, 자연·낭만성·정서·운율·이미지 등 작품 구성요소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W. 워즈워드의 시편들과 낭만주의시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시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W. 워즈워드를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의 <서곡(Prelude)>과 <관동별곡>을 현대 비평이론을 문학작품에 적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 작가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오쿠노 호소미치(おくのほそ道)>와 <관동별곡>을 기행문학의 측면에서 비교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서수생(1962), 「송강의 전후미인곡 연구-특히 굴원의 초사와 비교해 가면서」, 『경북대논문집』 제6집, 경북대.
- 최석자(1963), 「송강가사와 이백의 시에 대한 비교문학적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1988), 「서포가 송강가사를 ‘아동지이소’라고 한 것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창간호, 반교어문연구회.

성원경(1994), 「송강과 동파문학의 비교고-관동별곡과 적벽부를 중심으로」, 『연민학지』3집, 연민학회.

김선기(2011), 「양미인곡에 투영된 두보의 시」, 『어문학』114집, 한국어 문학회.

호아남(2013), 「송강가사와 굴원 <구장>의 비교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배기원(1979), 「한·영 낭만주의시 비교 연구-송강과 Wordsworth를 중심으로」, 『관대논문집』 7집.

이상란(1987), 「Paul de Mann의 문학비평론과 정철의 <관동별곡>과 Wordsworth의 The Prelude」, 『비교문학』12집, 한국비교 문학회.

강경하(2002), 「한·일 기행문학의 비교 연구-〈관동별곡〉과 『오쿠노 호 소미치』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이와 같은 비교 연구들은 작품의 체재적 차원이나 정서적 국면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단순 대비하는 차원에 머무르기보다는,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작가의 개성과 작품론적 특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수반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송강가사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 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방면의 초석은 김대행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송강가사 네 편을 대상으로 작품의 이해 과정과 감상 과정을 세부 내용을 들어 논의하면서, 송강가사가 각기 경향이나 특색의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보편성과 개별성이라는 양대축을 두루 살피는 데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송강가사는 문학교육의 여러 문제, 특히 문학과 일상의 관계를 살피기에 적합하다는 논의를 폈다. 이후 <관동별곡>의 표현교육 자료로서의 가치와 묘사의 양상 및 묘사가 지니는 교육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역시 <관동별곡>을 대상으로 고전문학 교육은 작품이

생산되고 향유되던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는 관점과 이를 자료로 하여 오늘의 삶을 이해하는 관점 양방향에서 추구할 필요성을 강조한 논의가 뒤따랐다. 또한 근래에는 <속미인곡>의 서술방법을 ‘문답형’이나 ‘논쟁형’이 아닌 ‘상담형’으로 보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시켜 문학교육과 상담의 통섭을 시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송강가사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교육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대행(1995),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고시가연구』2·3합집, 한국고시
가문학회.

염은열(2000), 「표현 교육의 자료로서 본 <관동별곡>」, 『고전문학과 표
현교육론』, 역락.

한창훈(2005), 「<관동별곡> 해석의 문학교육적 의미망」, 『문학교육학』
1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박태진(2011), 「<속미인곡>의 서술 방법에 나타난 상담의 특징 고찰-문
학교육과 상담의 통섭적 관점에서」, 『고전문학과 교육』21
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이와 함께 송강가사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방면의 석사논문들이다. 앞장의 시기별 연구 동향과 특징을 고찰하는 자리에서 이미 개략적인 양상을 살폈지만, 송강가사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논의가 줄기차게 산출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송강가사가 역대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된 데 말미암는다. 아울러 송강가사의 교육적 적용과 활용이 각 시대의 문화적 환경과 학습자의 수용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데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몇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심수진(2002), 「답화 분석을 통한 가사교육의 방안-송강가사를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아(2003),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고전시가 교수·학습 방법 연구-정철의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선(2004), 「고전시가 WBI 프로그램 설계 및 수현-어부사시사와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지해(2007), 「매체를 활용한 고전문학 지도방안-〈관동별곡〉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도현(2008),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사미인곡·속미인곡〉의 지도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효민(2009), 「ICT를 활용한 〈관동별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인(2013), 「능동적 수용으로서의 다시 쓰기를 통한 가사문학 교육방안 연구-〈사미인곡〉·〈속미인곡〉의 수용사적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런데 이들 석사논문은 교육적 적용 방법론에 있어서 적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듯 싶어도, 논의 대상이 대부분 동일하기에 실제 논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태반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송강가사를 교수·학습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학습논리와 적용의 틀 및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웹기반 교육(WBI)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이해 및 친밀도는, 오늘의 세대와 기성세대 교사 간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송강가사의 ‘종합적 고찰과 작가로서의 개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전작의 단행본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간된 데다 앞에서 거론한 몇몇 단행본들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송강가사만을 집중 논의대상으

로 삼은 종합적 고찰은 드물다. 그런 가운데서도 송강가사 작품들에 대한 평설과 송강의 가사 작가로서의 개성에 대한 개괄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작품에 투영된 송강의 미의식과 자연인식을 특히 진술방식과 형상화 양상에 초점을 맞춰 고찰한 논의가 산출되었으며, 송강가사 네 편에 대한 작품론적 특질을 대중적 시각을 고려한 차원에서 기술한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 이들 논의는 송강가사의 문학성에 대한 포괄적 측면에서의 고찰이면서, 고찰의 결과를 토대로 송강의 가사 작가로서의 개성적 단면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삼불(1956), 『송강가사 연구』, 평양; 국립출판사.

이병주(1968), 「정송강과 그의 가사」, 『새국어교육』제1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최상은(2004), 『조선 사대부 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서.

최상은(2006), 『가사문학의 이념과 정서』, 보고서.

김신중·박영주 외 지음(2009), 『담양의 가사기행』, 담양문화원.

나아가 이 방면의 박사논문들에 있어서는, 인구에 회자되며 누대에 걸쳐 성가를 누려온 송강가사 작품들의 전승과 수용(향유) 양상에 대한 탐구가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송강가사 비평담론의 사회문화적 맥락 및 연행적 맥락 속에서의 전개양상과 의미를 수용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논의가 그 사례의 하나이며, 송강가사가 널리 전승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양상과 그 원동력 및 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한 논의가 다른 하나이다. 이들 논의는 송강가사에 대한 역대 논평과 담론 자료들을 포괄적 시각에서 검토·분석하면서, 전승-수용(향유)-재창조로 이어지는 통시적 맥락 속에서 송강가사가 갖는 의미를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진희(2009),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구선우(2013), 「송강가사의 전승과 향유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송강가사의 ‘종합적 고찰과 작가로서의 개성’에 결부된 논의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학사적 의의와 위상을 살핀 논의이다. 이 부분의 논의 가운데에는, 우리말을 아름답게 갈고 다듬어서 언어가 주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실현하고, 탁월한 수사기교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정서가 유려하게 녹아들어가게 함으로써, 가사장르를 온전한 문학양식으로 완성시킨 데 송강가사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으며, 그리하여 가사장르를 세계적인 문학양식으로 정립시켰다는 데 송강의 문학사적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 한편으로, 송강가사 네 작품을 대상으로 그것을 산출시키고 향유하였던 조선시대와 현대와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송강가사의 당대적 가치와 현대적 수용 문제를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 이와는 다른 층위에서, 송강 당대로부터 사후 경모 추앙의 분위기 속에서 송강가사가 전승되는 모습을 재구하면서, 가사 발전과정에 따라 송강가사를 수용하는 방식의 차이와 전승사실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송강가사의 문학사적 의의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문학작품의 수용양상과 가치평가의 문제가 송강가사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전일환(2005), 「한국문학사상 송강가사의 위상」, 『한국언어문학』55집, 한국언어문학회.

김신중(2006), 「송강가사의 당대적 가치와 현대적 수용」, 『고시가연구』1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윤덕진(2007), 「송강가사 전승사실의 맥락」, 『열상고전연구』26집, 열상고전연구회.

이밖에 다소 독특한 연구로서, 송강가사 판각본 서체의 다양한 모습들을 서풍과 서체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송강가사 판각본의 특징과 한글 서예사적 의의를 밝힌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명순(2003), 「송강가사 판각본의 서예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그동안의 송강가사 연구는 송강문학 연구사 초기로부터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적 자각을 통해 확장되어 왔으며, 가사작가로서 대대로 누려온 송강의 성가를 입증하고,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작업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문은 작품론적 특질과 미학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송강가사가 지닌 가치를 오늘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수용·향유할 수 있는가에 따르는 방안 모색과 대중적 확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송강문학의 대명사처럼 되다시피한 송강가사의 의미와 가치를 오늘의 시각에서 거듭 새롭게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④ 국문시가 연구 동향과 특징

송강의 시조나 가사 한 장르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이를 ‘국문시가’라는 층위에서 함께 논의한 경우를 차별화시켜 그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논의들은 부분적으로 시조나 가사의 연구사적 동향과 특징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논의 대상과 층위 면에서 차별성 또한 분명하게 지니고 있기에, 보다 면밀한 연구사 정리와 검토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 국문시가의 ‘서지·전기·배경’에 대한 논의는, 앞장에서 언급한 가람 이병기의 고찰(「송강가사의 연구(1)·(2)·(3)」)이 시발점이 되면서

이후 논의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 『송강가사』 가집판본 및 冊版을 중심으로 ‘서지’에 대한 포괄적 고찰이 이루어졌고, 가람의 작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의미부여 작업까지 시도되었다. 이와 함께 송강의 시조 78수와 가사 4편을 송강의 전기적 생애를 근거로 연대별로 재구성해 놓은 논의가 이루어져 송강시가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송강문학의 형성 배경을 <성산별곡>·<관동별곡>과 시조에 등장하는 제재들을 중심으로 당대 문화적 약호(code)와 그것이 지닌 의미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미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이거나 구체화된 관점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문기(1989), 「송강·노계·고산의 가집판본 및 冊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1집, 국어교육학회.

김윤희(2013), 「『송강가사』에 대한 가람 이병기의 비평과 정전화의 실제」, 『한국학연구』 44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이종국(1990), 「송강의 국문시가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박연호(2006), 「송강문학의 형성 배경-용과 학의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집, 우리어문학회.

다음으로 ‘언어·표현·제재·구조’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송강 국문시가 작품들에 쓰인 어휘들의 용례, 의미, 맥락 및 사용빈도를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일종의 특수사전이 출간되어, 송강 문학작품의 분석적 탐구 및 원전의 심층적 해석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해주었다. 또 송강시가에 등장하는 ‘화자’의 문제는 가사작품을 대상으로 한 논의들을 통해 이미 다양하게 고찰되었지만, 국문시가 전반을 대상으로 삼은 논의가 이루어져 그 양상과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연군’을 제재로 한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강시가에 있어서 작품에 등장하는 군주의 형상화 방식이 갖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요컨대 송강의 연군시가를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나 아유로 읽는 것을 지양할 필요성을 제기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홍규(1993), 『송강 시의 언어-컴퓨터 처리에 의한 시가 용례 색인 연구』, 고려대출판부.

윤미연(1995), 「정철 시가의 시적 화자 연구」,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고영화(2011), 「송강 시가에 나타난 군주의 특성 고찰」, 『정신문화연구』 125호, 2011·겨울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송강 국문시가에 담긴 ‘사상·자연관·주제·미학’과 관련된 논의로는, 우선 한시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인 고전시학적 관점에서 송강의 시조와 가사를 검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르면 송강시가는 재도적 문학관에 기초하면서, 작시원리인 鋪陳과 影描의 조화를 추구한 데 특징적 일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송강시가의 작품론적 특질과 미학은 오랜 기간 다각적인 고찰이 이루어졌지만, 송강시가에 두드러진 풍류를 제재로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이 표상하는 바를 미학의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작품론적 특질 구명에 있어서 진일보한 시각을 열어 놓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시조시인·가사시인으로 일컬어지는 고산과 송강 두 시인의 문체적 특징과 작시원리를 비교 고찰한 논의를 통해서, 보편적 서정시의 시학에 해당하는 명사적 정련된 시학을 추구하는 고산과는 대조적으로, 송강의 경우는 일상어적 시학을 통해 민중의 일상적 언어체계를 시의 언어로 끌어올린 데 특징이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송강시가에 드러난 고유어 사용의 실제와 이를 통한 작품론적 특성에 대하여, 말하기 방식과 그 효과를 미학의 측면에서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시가의 시학 혹은 미학 구명에 있어서 방법론적 성찰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특징

이 있다고 하겠다.

정대림(1981), 「고전시학으로 본 송강시가」,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최진원(1988), 「송강시가의 풍류와 그 표상」, 『대동문화연구』 22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고정희(2001), 「윤선도와 정철 시가의 문체시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진욱(2008), 「정철 국문시가의 문예미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비교 연구’ 부문에 있어서는, 시조나 가사의 경우를 통해 이미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아우른 국면에서 국내 작가 작품들과의 대비와 중국 작가 작품들과의 상관성에 주목한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한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성익(1966), 『송강·노계·고산의 시가연구-한국 근세 3대 시가인의 대비적 연구』, 현암사.

董 達(1995), 『조선 3대 시가인 작품과 중국 시가문학과와의 상관성 연구』, 탐구당.

이들 논의는 비교 작가들의 시풍과 작품론적 성향을 기술하면서 대비적 측면에서 간략히 논의하거나, 작품의 제재적 측면의 영향관계와 시적 취향의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송강시가의 특징적 면모를 검토한 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송강 국문시가의 ‘교육적 적용’에 관련된 논의 역시 가사작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니와, 시조와 가사를 아우른 차원의 경우는 논의 자체가 드물다.

송강 국문시가를 대상으로 ‘종합적 고찰과 작가로서의 개성’을 논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송강의 국문시가에 대한 인식을 효용론적 시정신의 계승과 표현론적 정서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주목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송강시가에 두루 나타나는 산·물 등 자연을 제재로 한 작품들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송강이 추구한 의식세계와 삶의 단면들을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송강가사를 대상으로 통시적 맥락의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는 송강시가의 후대적 수용 양상과 의미를, 17세기 시가문학 장르의 전승과 유포 과정이 당파 혹은 당색과 긴밀한 영향관계에 놓여 있다는 가설을 송강시가를 통해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의 국문시가에 대한 인식과 작품론적 실제에 대한 이해를 다지고, 당대적 혹은 후대적 수용에 결부된 의미를 보다 예각화된 관점에서 고찰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권용주(1994), 「송강의 시세계」, 『시조학논총』 10집, 한국시조학회.

윤영옥(2005), 『송강·고산·노계가 찾아든 산과 물 그리고 삶』, 새문사.

하운섭(2008), 「17세기 송강시가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37집, 민족문학사학회.

송강 국문시가의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논의 역시 ‘종합적 고찰과 작가로서의 개성’에 관련된 논의를 대표하는 예다. 이 방면의 논의는 크게 보아 송강가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송강가사에서 보는 활달한 시상과 호기와 흥청거리는 멋은 선천적 바탕이요, 사설시조 <장진주사>에서 보는 퇴폐적 정서는 후천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송강시가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고 송강의 작가로서의 개성을 규명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송강의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그의 장르의식, 작품의 갈래 및 양상, 작품에 표상된 의식세계, 설정된 화자와 어조 등을 고찰하면서, 일상어를 구사하여 구어문학의 전통을 확립하고 이처럼 다양한 국면에서 후대 문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적 선례 역

할을 했다는 데 송강의 문학사적 위상이 놓여 있음을 규명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강시가에 내재된 특징적 요소와 국면들을 근거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미부여가 이루어진 예들이라 할 것이다.

박요순(1993), 「정철과 그의 시」, 『송강문학연구』(신경림 외 2인 편), 국학자료원.

조규익(1993), 「송강문학의 국문학사적 위상-국문노래를 중심으로」, 『송강문학연구』(신경림 외 2인 편), 국학자료원.

이렇듯 송강 국문시가를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는, 시조나 가사 한 장르만을 대상으로 삼은 경우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하거나, 작품론적 특성을 보다 확장된 국면에서 고찰한 연구들에서 두드러지며, 송강시가 연구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송강문학에 대한 논의와 가치평가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송강가사에 편중되어 온 경향을 감안할 때, 장르적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송강의 시조나 가사 어느 한 장르만이 아닌 포괄적 확장적 국면의 논의가 갖는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른 문제의식과 적용 가능한 방법론의 모색에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색의 결과들이 송강의 우리말 문학이 이룩한 성과와 특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때, 송강이 한시를 통해 이룩한 성과와 더불어 송강문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보인다.

⑤ 종합적 연구 및 작가론의 동향과 특징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을 송강 문학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고찰한 논의는 송강문학 연구 초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장 풍부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물론 송강 문학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삼은 만큼 한시·시조·가사 등 개별 장르 논의들을 말 그대로 ‘종합한’ 형태의 성과물이 적지 않고, 특히 단행본으로 출간한 성과물은 개별 장르 논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송강 문학작품 전반에 대해 일정 문제의 식이나 논제에 초점을 맞춘 전작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송강문학 연구는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가람 이병기의 「송강가사의 연구(1)·(2)·(3)」(1936~7)에서 서지적 검토와 작품 주석 및 해설이 이루어지고, 도남 조운제의 『조선시가사강』(1937)에서 간략한 생애와 작품론이 전개된 이후, 송강의 문학세계를 생애적 궤적과 함께 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고찰한 김사엽의 『정송강 연구』(1950)에 이르면서 초기 연구의 한 매듭을 이루었다. 이들 연구에 의해 송강문학 이해의 기초가 마련되고, 작품세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는 가운데 작가론의 실마리 또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송강 문학세계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필경 작가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례다. 작품세계의 특질과 의의의 연계선상에서 작가의 개성과 문학사적 위상을 규명하는 논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루기 때문일 터다. 이는 송강 문학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전기·배경’에 관련된 논의를 편 경우에서 두드러진다. 송강에 대한 전기적 측면의 연구는 초기 연구에서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거니와, 후대 연구들은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자세하게는 본격 작가론이나 평전에 의해 일단락되는 셈이다. 송강의 문학세계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전기적 측면의 사실과 연계된 작품 창작의 배경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송강문학의 ‘배경’은 크게 시대적·지리적·인물적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며, 이를 전기적 배경으로 수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송강 문학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 이후, 이 방면의 논의는 작가의 생애적 궤적 탐구와 함께 작품 산실의 주요 무대가 된 지역의 풍토와 문화적 분위기, 작가가 긴밀하게 교유했던 문인들과의 연관에 초점을 맞춘 시각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보다 진전된 성과들을 산출하였다.

그 선편은 정익섭의 「호남가단 연구」로서, 여기에서 그는 송강의 생애, 성산가단의 작품활동, 송순과 송강과의 관계 등을 살피면서, 송강문학 형성 배경 고찰과 함께 송강을 호남가단의 완성자 위치에 올려놓았다. 이어지는 논의들을 통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성과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송강의 가계·생애·師友 관계 등에 대한 보완적 고찰이 이루어졌고, 송강의 작품활동 무대이자 배경이 된 담양 창평과 일대 누정들을 중심으로 유적지의 역사와 인물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선전기 호남에 생활 근거지를 둔 문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시적 교유와 시단의 형성, 인물과 그 특색, 문학의 산실이 된 누정 고찰과 더불어 송강의 시세계를 조명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송강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충효·절의·예악에 결부된 사상을 작품의 주제나 내용상의 원리로 작용한 유교사상으로, 신선·취락·物化 등에 결부된 사상을 작품의 소재나 표현 기법상의 원리로 작용한 도교사상으로 파악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문학의 형성과 작품 창작에 관여한 시대적 지리적 배경 및 인물들과의 연관 속에서, 송강이라는 작가의 개인 혹은 집단 속에서의 활동과 영향관계를 고찰한 점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작품 내적 사실과의 연계를 충실히 구명해 내지 못한 논의들의 경우는 배경적 사실 연구가 지닌 단순성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익섭(1975), 「호남가단 연구-면양정가단과 성산가단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이은봉(1993), 「송강 문학의 전기적 배경 연구」, 『송강문학연구』(신경림 외 2인 편), 국학자료원.

정춘용(1993), 「송강문학의 고향」, 『송강문학연구』(신경림 외 2인 편), 국학자료원.

박준규(1998), 『호남시단의 연구: 조선전기시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출판부.

최태호(1998), 「송강문학의 배경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송강문학의 ‘제재·표현’에 관련된 종합적 논의로는,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그 특징적 양상과 의미를 작품의 주제적 국면과 연결시켜 우시연군·은구독선의 修己 및 선공후사의 率先을 형상화하는 매개물로 관여하였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송강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제재의 이미지를 주제적 국면의 意境과 연관지어 고찰한 후, 송강문학이 시대를 뛰어넘어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요인의 일단을 시대적 유행이나 이념의 압력에 얽매이지 않는 내면의 진솔성에서 파악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이질적인 문학관과 정서의 바탕 위에서 창작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송강의 국문시가와 한시는 결국 일원론적 정서의 산물인 점에서, 표현론적 정감의 세계와 효용론적 이념의 세계를 다양한 시 형식 및 정서적 국면들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극복, 체념의 승화 등으로 형상화해 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송강의 음주시에 두드러진 사유와 정서적 형상 및 풍격 고찰을 통해, 작가의 개성에 결부된 품성과 기질 및 작품의 미적 특성을 구명하는 논리적 틀을 모색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송강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방법론의 다양성이 모색되고, 작품론적 특질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갑기(1986), 『소재로 본 송강문학』,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김석희(1996), 「학의 이미지를 통해 본 송강 문학의 주제적 특성」, 『선청어문』 2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배식(2008), 「송강의 시에 나타난 표현론적 세계」, 『고시가연구』 22집, 한국고시가학회.

박영주(2013), 「송강 음주시의 양상과 풍격」, 『반교어문연구』 34집, 반교어문학회.

송강이 추구한 ‘사상·자연관·주제·미학’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초기 연구로부터 지속되어 온 관점과 내용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데 머문 부문과, 진일보한 문제의식을 통해 심화된 논의를 축적시켜 온 부문으로 나뉘어 적잖은 편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송강문학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연구사 초기로부터 언급되어 온 유가와 도가(도교)사상에 대한 고찰이 단편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포함하여 동양문화의 형성 지주였던 유·불·선·민간신앙이 송강 문학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포괄적 국면에서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논의들은 이를 보완하거나 그 구체적 양상을 작품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에 머문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갑기(1977), 「송강의 문학사상 연구」, 『동악어문논집』 10집, 동국대학교 동악어문연구회.

전현기(1985), 「정송강의 문학사상고」, 『논문집』 8집, 군산실업전문대.

신희숙(1990), 「송강문학에 나타난 도교사상 연구」, 『열린문학』 3집, 동덕여대.

그런데 이들 논의는 대체로 송강이 추구한 사상이나 작품에 투영된 특질이라고 하기에는 그 깊이를 실감하기 어려운, 작품으로부터 환기되는 사상의 단편적 경향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이를 송강의 ‘문학사상’이라고 일컫기에는 개념적 범주 면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학사상과 관련하여 작가가 남긴 문학 외적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방면의 논의가 좀더 구체성을 띠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자각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송강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仙’의 존재나 의미에 대하여 대부분 ‘神仙’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통례인데, 상당수의 작품에서 신라 화랑 즉 ‘國仙’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이를 분별하여 논의를 펼 필요

가 있다. ‘신선’이 아닌 ‘국선’을 의미하는 경우 작품의 시적 이미지나 정서적 형상은 전혀 달리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송강의 문학작품에 투영된 사상은 비단 이와 같은 정신(종교)적 측면만을 일컫는 것이서는 곤란하다. 문학적 측면의 사상 즉 문학사상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논의를 통해 검토해 온 바, 제도적 문학관에 기반한 효용론과 표현론에 송강 문학사상의 특징적 일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의 심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개척적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의 문학사상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작품에 투영된 ‘자연관’ 연구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면의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송강문학에 나타난 주요 자연물을 산·물·달·꽃·새로 제시하고 이를 송강의 생애와 결부시켜 고찰하면서 景中情 情中景 詩中畫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산·물·달·바람을 중심으로 삼은 논의에서는 송강시가에 나타나는 자연에는 직관의 대상이 되었던 실경의 대상과 주관적 심미안으로 有情化된 대상의 양면이 있으나 후자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 송강은 16세기 조선조 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을 피세처로 삼았던 바, 벼슬길에 있을 때에는 눈으로 자연을 동경하여 이상향의 대상으로 노래하고, 벼슬길에서 벗어나서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무위자연의 순수미를 형상화한 점이 송강의 자연인식의 특징적 단면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작가의 자연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내면의 사유와 정서 및 가치의식의 형상화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송강이 추구했던 문학사상의 일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안병태(1969), 「송강문학에 나타난 자연관」,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박준규(1979), 「송강의 자연관 연구(I)-산과 물을 중심으로」, 『용봉논

총』 9집,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박준규(1980), 「송강의 자연관 연구(Ⅱ)-달과 바람을 중심으로」, 『장암 지헌영 선생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김성기(1995), 「송강의 자연관」, 『고시가연구』 제2·3합집, 한국고시가 문학회.

송강문학의 작품론적 특질이자 ‘미학’에 관련된 종합적 논의로는, 초기 연구의 경우 도남 조운제와 위당(담원) 정인보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학들의 송강문학에 대한 평설은 때로 인상비평에 가까운 직관적 간결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작품세계의 본질이자 핵심을 간파한 분석적이며 투시적인 정밀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도남과 위당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는데, 도남의 “송강의 작품은 일언으로 평하면 그 辭는 호탕하고도 비장하다 하겠고 그 調는 流流不息하여 궁한 데가 없다 하겠는데 대개 초년의 작은 豪蕩無際한 편이고 만년의 작은 悲壯含淚의 편이다.”, 위당의 “송강은 호탕할 때는 호탕하고 처절할 때는 처절하고, 더욱 그 순박하게 나오는 詞氣야말로 곧 薄俗을 돌며 놀 듯한 데가 있다.”와 같은 평설들은 후대 송강문학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 컸다고 할 수 있다.

조운제(1937), 「송강과 송강가사」,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정인보(1955), 「정송강과 국문학」, 『담원국학산고』, 문교사.

이 방면의 연구는 조선시대 문인들을 포함하여 송강문학의 작품론적 특질에 대한 역대 평들을 작품 분석을 통해 입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를 염두에 두면서도 오늘의 방법론적 시각에 보다 충실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연구사적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송강은 시인의 본질적 인간형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오르페우스(Orpheus)의 원형에 매우 근접해 있는 풍모를 지니고 있

으며, 송강문학의 감동원리는 그가 시와 시작을 통해 경험했던 심적 고뇌와 구제의 과정을 오늘날의 우리가 그의 작품들을 통해 추체험 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논의를 주목할 수 있다. 또 기왕에 거론되어 왔던 송강문학의 특질이 송강문학의 독창성을 이해하고 그 문학적 성취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지적하면서, 비교 논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송강과 면앙정·고산·노계·기봉 등의 문학작품들과의 대비 연구에 있어서 송강문학의 특질과 개성적 면모들을 보다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각성을 작품 분석의 실례를 들어 일깨운 논의 역시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송강문학을 관류하는 정서적 특질을 작품에 두드러진 시적 이미지와 형상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규명함으로써, 송강의 문학작품들이 오랜 세월 뛰어난 문학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온 요인과 우리를 감동케 하는 요인을 작품론적 실상에 입각하여 해명하고자 한 논의 또한 나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석희(1983), 「송강문학의 서정적 특질 소고」, 『국어교육』 44·45합병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권두환(1993), 「송강 정철 문학의 특질」, 『인문논총』 제30집,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박영주(1999), 「송강 시가의 정서적 특질」,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그런가 하면 ‘비교 연구’와 관련된 종합적 논의에 있어서는, 송강의 한 시와 국문시가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작가와의 대비는 물론 중국의 유명 시인들과의 대비가 이른 시기로부터 대세를 이루었으며, 개별 장르들이 아닌 종합적 국면에 있어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논의 이래로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양 문학인과의 대비 역시 희소하기는 해도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것도 영어문화

권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W. 셰익스피어와 대비가 이루어진 점은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한번쯤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래 송강을 ‘한국의 셰익스피어’라고 일컫는 발언들이 빈번하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에 값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보다 심각한 언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선(1958), 「송강문학의 비교문학적 시고」, 『문리대학보』 통권1호, 부산대.

진용수(1958), 「셰익스피어와 정송강」,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송강이 창작-활용한 장르를 포괄한 논의면서도 이상에서와 같은 부문별 논의가 아닌 말 그대로 ‘종합적 국면에서의 고찰 및 작가로서의 개성’을 살핀 연구는, 예의 김사엽의 초기 연구 이후 한동안 집약적인 성과를 산출해 내지 못하다가, 앞에서 논의한 한시나 국문시가를 대상으로 한 박사논문들이 작성되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과 앞뒤를 이루는 가운데 송강문학 전 장르를 포괄한 전작의 박사논문들이 작성되면서 본래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증하는 연구로는 먼저 송강의 한시·시조·가사 작품 전반의 양상과 작품론적 특징을 고찰한 후, 이를 종합적 국면에서 송강문학이 지닌 복합적 성격과 작가의식으로 수렴한 논의가 이루어져, 작품론적 실제에 기반한 송강문학론의 한 모습이 제시되었다. 이어 송강의 국문시가와 한시는 별개 문학관의 산물이 아닌 상통성을 지녔다는 시각 또는 동일한 작가의 일원적 정서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문시가와 한시에 내재된 본질의 동일성 해명에 주안점을 둔 논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장르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송강문학의 특징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송강 문학작품의 후대적 수용 양상을 정리하면서 특히 수용자의 미적 반응에 주목하여, 작가의 시적 형상력과 독자의 감수성 사이에 빚어지는 미의식의 기반을 살피고 오랜 동안 상찬받은 미적 특질을 밝

힌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송강문학의 특질을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구명하는 방법론적 자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송강 국문시가와 한시의 주제적 양상 및 미학적 특징 구명을 통해, 송강문학이 지니는 미학적 가치가 오늘날에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유를 밝힌 논의 또한 이루어져, 송강문학의 작품론적 특징에 대한 접근 시각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태호(1987), 「정송강문학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김선자(1993), 「송강 정철의 시가 연구-한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권용주(1994), 「송강 정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최규수(1996), 「송강 정철 시가의 미적 특질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김진욱(2003), 「송강 정철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을 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고찰한 논의의 귀착점은 작가론과 평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면의 논의는 우리 문학사나 문학 연구사에서 거론되는 송강의 성가에 비추어 적 이 풍부할 듯 싶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의외로 많지 않다. 이는 송강이라는 작가 혹은 송강 문학세계의 특징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이 석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전작의 논의들을 통해 으레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송강 문학세계의 종합적 고찰과 작가로서의 개성 및 평가를 통한 문학사적 의미 부여와 위상 정립에 소홀한 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방면 논의에 있어서도 역시 김사엽의 『정송강 연구』(1950)나 정인보의 「정송강과 국문학」(1955)과 같은 논의 등을 이른 시기의 성과로 거론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국면에서 송강의 생애와 품성 및 개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작품론적 사실에 충실한 논의를 편 예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권영철(1977), 「정철론」, 『한국문학작가론』(황패강 외 2인 공편), 형설출판사.

김갑기(1985), 『송강 정철 연구』, 이우출판사.

한국고시가연구회(1994), 『송강 정철의 생애와 문학』, 전라남도.

김석희(1998), 「민족어의 연금술사 송강 정철」, 『한국고전문학작가론』(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엮음), 소명출판.

박영주(1999), 『송강 정철 평전』, 중앙M&B.

이들 논의는 대부분 송강의 인물됨됨이는 물론 송강이 이룩한 문학세계의 특질과 문학사적 위상에 결부된 문제들을 특히 평가의 차원에서 논의했다는 점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을 조명함에 있어서 국문시가와 한시를 망라한 종합적 고찰이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이미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전적 성과물이 가장 미흡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송강문학의 종합적 연구 및 작가론에 부여된 핵심 과제는 송강이 이룩한 문학세계의 미학적 특질 해명과 여기에 근거를 둔 작가로서의 개성을 보다 새로우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송강문학이 우리 문학사에서 지니는 위상이 남다르기 때문이며, 그런 만큼 그 영향력 또한 지극히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송강문학은 당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층위에서 지속적으로 향유되고 있기에, 그의 문학세계가 지닌 매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늘의 연구자들이 거듭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⑥ 기타 연구

송강의 문학세계나 작가로서의 개성에 결부된 논의 가운데에는 다소 이채로운 경우도 있다. 여기에 속하는 예들은 논의 대상이나 접근 시각에

있어서 이상에서 살핀 경우들과는 성격이나 특징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논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선풍(1983), 「전설에 나타난 정송강(Ⅰ)-위인론을 중심으로」, 『관대논문집』 제11집, 관동대.

김선풍(1983), 「전설에 나타난 정송강(Ⅱ)-위인과 구조면에서」, 『흔미최정여 박사 송수기념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유예근(1986), 「송강 산문고(1)」, 『어문논총』 제2집, 경희대대학원.

유예근(1987), 「송강 산문고(2)」, 『논문집』 제27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시황(1999), 「정송강(철) 계주문 고구」, 『인문과학』 13집,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최태호(2003), 「송강의 『연행일기』 고찰」, 『논문집』 42집, 목원대.

김사엽(1959.8.8.~9.), 「송강의 국문유목-국문학의 새로운 사실」, 『동아일보』.

기혜경(2010), 「송강 정철 한글 유목 연구」, 경기대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 목록에서 볼 수 있듯, 앞의 시기별 연구 동향과 특징을 살피는 자리에서 언급했던 송강의 인격에 결부된 인물론을 특히 구비전승 자료 분석을 통해 고찰한 논의가 있는데, 논의 자료 대부분이 송강을 부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시인으로서의 명성에 가려져 별다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송강 산문에 대한 연구는, 문집에 전하는 疎啓類나 記文類을 위시하여 日記類 및 書簡類 등 적지 않은 편수를 차지하는 글들에 대한 개괄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술을 경계하는 글[戒酒文]에 대한 논의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1593) 북경에 사신 다녀온 기록인 「연행일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밖에 서예학의 관점에서

송강가사 판각본(성주본·관서본·이선본)의 서체를 비교 고찰한 논의, 송강이 남긴 유묵의 국·한문 서체를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송강문학 연구 대상의 확장 또는 다양화의 일면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5. 연구 전망과 바람직한 방향

연구사 검토 작업은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거론하고, 향후 연구 전망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터다. 이제 지금까지 시기별·장르별·주제별 국면에서 제시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송강문학 연구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의 개선 방향과 향후 전망적 시각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기로 하겠다.

① 연구 대상과 관련된 장르적 편향성 및 방법론적 편향성 극복의 필요성 : 송강의 한시·시조(사설시조)·가사 가운데 가사 작품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장르적 편향성이 심하다. 그래서 때로 가사 연구 결과를 송강문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과행을 빚기도 하며, 송강의 한시나 시조작가로서의 개성이 온당하게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장르적 편향성은 송강 문학작품의 특질을 분석하는 과정에 동원되는 방법론의 편향성을 초래하기도 하여, 개별 장르 작품들이 지닌 시세계와 특성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깊이를 지니지 못하기도 한다. 논의 대상에 대한 확장적 시각과 방법론적 다양성의 확보를 통해, 송강 문학세계가 지닌 넓이와 깊이의 실상을 보다 온전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송강의 문학세계를 관류하는 특성 구명의 필요성 : 방법론적 편향성 극복의 필요성은 송강의 문학세계를 관류하는 특성을 구명하는 작업과도 연계된다. 개별 장르 작품들이 지닌 시세계와 특성이 의미를 지니면서도, 포괄적 통합적 국면에서 송강 문학세계의 특질과 작가로서의 개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서 보다 발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조와 가사를 국문시가의 측면에서 논의하거나, 국문시가와 한시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일정 주제 하에 동일 층위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작업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송강문학 연구는 작품세계를 관류하는 특성이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을 통해 구명될 때 비로소 본격적인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송강문학의 특질과 미학을 규명하는 논의의 심화와 지속 : 송강문학 연구의 핵심에 해당하면서도 발전적인 성과가 가장 부진한 부문이기도 하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 동향과 특징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송강의 한시·시조·가사 등 모든 장르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작품에 내재된 미적 정서적 형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롭고도 다양한 방법론적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심화된 논의를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송강의 작품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이 지닌 복합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양상에 대한 진일보한 성과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왜 절창인가?’로 대변되는 미학적 해명의 필요성은 송강문학을 평가하고 위상을 정립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선인들의 평에 경도된 논의는 발전적 성과를 일구어 내는데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기 어렵다. 송강문학에 대한 이해와 향유 및 평가에 결부된 새로운 시각의 모색과 방법론적 성찰 없이는 기존 논의의 복제나 확대 재생산에 머무는 등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④ 송강시가의 누대에 걸친 수용 및 선호와 결부된 연행론적 특성 해명의 필요성 : 송강문학 가운데서도 특히 국문시가는 오랜 세월 다양한 계층에서 수용되어 왔는데, 그 실상에 대한 고찰은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송강시가의 장르실현 양상이자 향유 방식과 관련된 연행의 측면이라고 하겠는데, 이 국면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송강 국문시가의 향유에 대한 논의면서 누대에 걸친 수용 및 선호 요인을 해명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논의 자료의 발굴로부터 문제의식의 확립과 논의 활성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송강 연구자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는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

⑤ 송강의 문학세계를 보다 친근하고 수월하게 수용·향유할 수 있는 대중적 교육적 기반 조성과의 필요성 : 아무리 대단한 성가를 지닌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열장 속에 갖혀 있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용·향유되지 못할 때, 그 작품은 불원간 화석화되는 결과에 이르기 십상이다. 송강의 문학작품은 역대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어 온 만큼 인지도 면에서 여느 작가 뒤에 서기 어렵다. 그러나 그 실질적 수용·향유와 결부된 보다 친근하고 수월한 대중적 교육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실효성 높은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교육적 적용에 관한 몇몇 논의나 석사학위논문을 제외하면 두드러진 성과를 찾기 어렵다. 이 문제는 결국 학술적 기반이 튼튼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수용·향유의 기반과 대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하겠는데, 이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⑥ 송강문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환기하는 가치의 실상에 대한 지속적 탐구의 필요성 : 송강문학의 수용·향유와 관련된 대중적 교육적 기반 조성과의 필요성은, 뿌리깊게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환기하는 가치의 실상에 대한 탐구가 선행될 때 보다 바람직한 구도를 갖출 수 있

다. 송강문학이 오늘의 문화적 풍토와 가치의식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작업은 송강문학 연구자들 모두에게 부과된 과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사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자각이 이루어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문학작품은 시대에 따라 이해·향유 방식이 다르고 평가 척도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⑦ 송강문학의 산실과 연계시킨 송강 문학세계 문화콘텐츠화의 필요성 : 송강의 문학적 유산을 오늘의 세대들로 하여금 보다 수월하고 흥미롭게 수용·향유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문화콘텐츠화 작업이다. 이는 오늘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송강문학의 가치를 거듭 새롭게 조명하고 대중적 확산을 꾀하는 발전적 성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다행히도 송강문학의 주요 산실이 된 지역 곳곳에는 송강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유적·유물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강 문학세계의 문화콘텐츠화 작업은 특히 이러한 송강문학의 산실과 연계시킨 차원에서 진행될 때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문화콘텐츠화를 빌미로 이른바 가공이 지나치다 보면, 송강문학의 본질을 왜곡·훼손하거나, 과거의 것도 현재의 것도 아닌 정체불명의 모호한 성격의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작업에 걸맞는 기획과 추진 과정의 진중함이 뒷받침될 때 합목적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앞의 연구사 검토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듯, 근래 송강을 ‘한국의 셰익스피어’로 일컫는 발언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적 주체성의 관점에 입각하면 ‘아무리 잘해야 셰익스피어라는 말인가?’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른바 글로벌한 관점에 입각하면 ‘만약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송강이라는 문호를 국제적으로 선양하는 작업은 필요하고도 소중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작업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송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세대들 가운데 세련된 아마추어가 많아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송강의 문학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성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서 나아가 그의 문학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데 필요한 대중적 인식기반과 이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 고전-특히 시는 작품에 담긴 서정의 세계에 동참하고 공감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체득할 때 비로소 존재가치가 살아나고 빛이 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연구사 검토 논문이므로, 본문에서 제시한 시기별·장르별·주제별
논저 서지 및 목록으로 참고문헌을 대신함.

투고일 : 2014 1월 15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Tendency and Prospect on the Study of Song-Gang's Literary Works

Park, Young-ju

This paper examines Song-Gang Jeong Chul's(1536~1593) literature world and accomplishment linked to the study of writer from a researcher's point of view, and investigates the prospect and direction of future studies. In order to do so, life history of Song-Gang, his literary works and research papers are organized in total. Then the research results of Song-Gang's literature are studied based on the prominent research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time, genre, and theme. By doing so, three-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existing research flow is expected, and this can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future research prospects and guide direction.

Academic foundations need to be solidified, and the methodological awakening for easier embrace of characteristics of the work criticism and aesthetical reality are also needed in order to activate the researches that can bring light to Song-Gang's literature and personalities as an author.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basi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reason why Song-Gang was an important author in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current studies are on-going processes, which focus on this fact, along with the realization of the meaning of classics in relation to current time.

Key words : Song-Gang Jeong Chul, literature, study, tendency, prospect